

2011 JUL·AUG Vol.88 07·08

인하대병원

Smart choice Best care!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열정으로
인하대병원 임상연구센터가
미래의 꿈을 앞당기겠습니다



JCI

World Best Safety, Global INHA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2011. 07+08

CONTENTS

J U L . A U G V O L . 8 8

04	행복을 전하는 글	내 마음 외에 바뀌어야 할 것은 없다
05	Well-being Report	야생 버라이어티, 캠핑~ 우리도 즐긴다!!
08	암. 함께 이겨내요	암과 우울증
10	의학정보 1	여름철 자주 걸리는 장염
12	의학정보 2	유럽 장출혈성대장균
14	의학정보 3	기생충, 간디스토마와 건강관리
16	운동처방사의 운동법	시간대별 운동 효과, 아침 VS 저녁운동
18	부서탐방	첨단 의과학 연구를 선도하는 인하대병원 임상연구센터
21	의료봉사	2011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
24	희망천사 릴레이	인천 동구청 '해피플래너'의 행복 마을 만들기
26	글이 머무는 풍경	태국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인하길사랑 정기 트레킹을 다녀와서...
30	톡톡약물상담	모든 갑상선제는 태반 통과 하자 않아, 임신 중 흔하게 사용
32	협력병원탐방	인천연세병원
33	병원소식	인하대병원소식 / 파랑새 소식
38	알립니다	언론보도 / 인사동정 / Global Inha / 지원봉사자 모집안내 발전기금 / 무료공개강좌 / 암 진료시간표

인하대병원보 2011년 07·08월호 통권 제88호 | 등록번호 : 인천마01031 | 발행일 : 2011년 07월 29일 | 발행인 : 박승림 | 편집인 : 홍보팀 | 편집디자인 : 테크포스
인쇄 : 금강프린텍 | 발행처 : 인하대병원 홍보팀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7가 7-206 | 전화 : (032)890-2603 | 팩스 : (032)890-2605

*본지는 한국간호불우리위원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과 이미지의 저작권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 외에
바뀌어야할 것은 없다

드코사드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네가 문제고
그들이 잘못한 것이고
사회가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시작하고
내가 먼저 다가서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셨는지요.
결국 문제는 나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바람, 냇물은 기본, 호텔 부럽지 않은 럭셔리함까지~ 야생 버라이어티, 캠핑~ 우리도 즐긴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자연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떠날 차비를 한다. 요즘은 모 방송의 야생 버라이어티의 열기 때문인지 '캠핑'으로 여름휴가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숲속에선 어느 것이나 맛있고, 누구나 한번쯤 꿈꾸는 캠핑에 대한 추억과 생각들~~~ 매년 캠핑족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캠핑카가 없어도, 호텔 시설 부럽지 않은 캠핑장에서 야생체험을 즐길 수 있다.

꼭 멀리 떠나지 않아도 자연을 벗 삼은 놀이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좋은 추억을 선물할 다양한 캠핑 패키지도 인기를 끌고 있다.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한데 어우러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캠핑을 선택한다. 그러나 막상 자연 속 공간으로 떠나려 하니, 시간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선다.

그렇다면 서울 도심 곳곳의 자연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캠핑장을 찾아보자. 가장 걱정스러운 화장실, 샤워실, 취사장은 물론 텐트를 가져 가지 않아도 텐트에서 잠을 잘 수 있다. 또 텐트 옆에 차를 세우는 오토캠핑은 무거운 짐을 낑낑대며 옮기지 않아도 되므로 편의성 좋은 캠핑이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캠핑 트레일러로 오토 캠핑촌을 형성한 곳도 있어 바리바리 싸갈 필요 없이 먹을거리만 준비만 해 가면 자연 속에서 호텔 부럽지 않은 하룻밤을 지낼수 있다.



도심에서 자연을,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멀리 자연으로 떠날 시간이 없다면, 도심에서도 충분히 야생체험을 할 수 있다. 자연공원 내에 가족과 함께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가족캠핑장인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매달 5일 선착순으로 참여 신청 을 받는다. 지난 2009년 8월 처음 개장한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지리적 특성을 그대로 살린 자연친화적인 가족캠핑장으로 가족(일반)캠핑장 49동, 오토캠핑장 8동 등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또한 멀티그리운드(농구장), 부설주차장, 음수대, 샤워실, 매점과 숲 속 쉼터, 연못, 냇가(개울)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갖췄다. 강동그린웨이는 허브천문공원과 인접해 있어 아기자기 한 분위기도 자아낸다.

자동차 옆에 텐트를, 중랑캠핑숲

'중랑캠핑숲'은 전 캠프장에 오토캠핑이 가능해 물품을 운반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상대적으로 편의성이 돋보인다. 중랑숲캠핑장은 숲속에 자리 잡은 데다 편의시설도 잘돼 있어 인기가 높다. 중랑캠핑숲의 경우 캠핑장 47면 전체에서 오토캠핑을 즐길 수 있다. 따라서 캠핑애호가들이 선호하는 곳이다. 아외테이블, 바비큐그릴, 전원공급시설 등과 함께 스파와 샤워장 등이 설치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을 자랑한다. 매월 15일 다음 달 예약을 받는다.

아찔함을 원하면, 자라섬 캠핑장

자라섬 캠핑장은 가평에 위치하고 있어 가벼운 마음으로 캠핑을 떠나기에 적합하다. 아찔함을 원하면 바로 자라섬 오토캠핑장으로 가보자. 2008년 세계캠핑캐리비닝대회가 열렸던 곳이기도 하고 선진국 수준의 캠핑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자라섬 캠핑장은 활동적인 캠퍼들에게는 인성맞춤이다. 수상클럽하우스, 모빌홈, 캠핑트레일러, 오토캠핑장, 카라반 등 국제적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오토 캠핑을 한 장소에서 체험할 수 있다. 아찔한 즐길거리는 바로 '짚와이어'이다. 높이 80m 철탑에서 쇠줄(와이어)을 타고 단숨에 자라섬, 남이섬으로 나뉘어 활강하는 가평의 이색코스이다. 이 밖에도 산책로, 농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모험놀이공원 등의

편의시설이 모여 있는 것도 특징이다. 모빌홈, 캐러반, 오토캠핑장 등이 설치돼 있으며 예약제로 운영된다.

가족캠핑장의 주인공, 난지캠핑장

난지캠핑장은 이른바 가족캠핑장으로 불리는 고정식 텐트 대여 시설이다. 설치해둔 텐트를 빌려주는 방식이다. 여기에도 두 종류가 있다. 텐트 옆에 차를 댈 수 있는 캠핑장과 텐트만 이용하는 캠핑장이다. 난지캠핑장은 강변에 자리 잡은 데다, 주차장과 거리도 가까워 편의성이 뛰어나다. 예약하면 별다른 장비 준비 없이 쳐놓은 텐트와 그늘 막, 식탁, 평상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난지캠핑장의 캠핑면수는 194면으로 서울에서 가장 크다. 캠핑과 더불어 입장료만 내면 당일 이용이 가능한 피크닉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인근에 노을공원을 비롯해 난지생태습지원, 잔디야구장, 자전거공원, 수상스키장, MTB코스장 등이 마련돼 있다. 다양한 여가시설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천 서구 가정동의 '꾸러기서바이벌체험학습장'

인천시 외곽에 위치한 자연 체험 학습장 및 레포츠 시설로 한켠에 오토캠핑장이 마련되어 있는 '꾸러기서바이벌체험학습장'은 자연 속에서 호흡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쉼터'이다.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다는 입지적인 장점과 잘

※사진제공 : 자라섬 캠핑장(www.jarasumworld.net)





정돈된 깔끔한 시설이 유명한 곳이다. 아울러 서바이벌, 울퉁불퉁 자갈길을 가르며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산악모터바이크 등과 같은 다양한 레포츠도 함께 즐길 수 있어 많은 캠핑족들이 즐겨 찾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캠핑장 중 한곳이다. 다른 캠핑장처럼 휴식도 할 수 있으면서 아이들과 같이 놀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곳이다.

발길 닿는 곳이 여행지, 캠핑카로 떠난다~~

캠핑카로 떠나는 여행은 장소 구애받지 않고 발길이 닿는 대로 떠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최근 드라마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장우·은정'의 신혼집으로 캠핑카가 등장하고 있어서 캠핑카에 대한 환상과 부러움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다락방 같은 추억을 즐길 수 있고 온가족이 한방에서 한데 잠들 수 있는 정이 넘치는 캠핑을 즐길 수도 있는 캠핑카는 20~30만 원 정도

도의 비용으로 대여가 가능하다.

캠핑카는 일반 캠핑카와 캐러밴으로 구분된다. 캠핑카는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한 차량으로 이동수단이자, 숙소가 되는 것이다. 반면 캐러밴은 트레일러 형태로 되어 있어 자동차에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동수단이 될 자동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 캠핑카보다 넓어 호텔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다양한 편의장치를 탑재해 6~7명의 가족단위 캠핑에 안성맞춤이다.

화장실은 물론 냉장고, 싱크대, 에어컨, TV 등이 설치되어 있다. 물탱크는 보통 하루 정도는 충분히 사용가능하며 물을 다 쓰면 휴대용이라 외부에서 채워 재사용이 가능하다.

신개념 숙박시설, 현지에서 즐기는 캠핑카 지리산 다목적 캠핑장

경남 하동군은 산청과 하동 경계지역인 옥종면 두양리 덕천강변 일원에 4987 m²(1510평) 규모의 다목적 캠핑장을 조성해 현재, 오토캠핑을 무료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이 캠핑장은 굳이 캠핑카나 트레일러식 캠핑카를 갖고 가지 않아도 현지에서 호텔시설 부럽지 않은 캠핑카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 일반 텐트나 오토캠핑을 물론이고 8월부터는 2인용 침대와 4인실 다락방, 취사실, 샤워실, 화장실 등을 갖춘 차량 형 모빌홈 3대와 더블 침대, 2층 침대와 취사, 샤워, 화장실을 갖춘 카리반 캠핑카 3대를 대여할 예정이다.

특히, 이곳은 지리산에서 흘러내리는 덕천강의 맑은 물과 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옥산서원, 두방재, 경현사 등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어 풍성한 캠핑을 즐길 수 있다.

단, 편의 시설에 매점은 없으므로 먹거리는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8월부터는 오토캠핑의 경우 1만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비수기, 성수기에 따라 6인실 모빌홈은 7만 원 ~ 13만 원, 4인실 카리반은 5만 원 ~ 10만 원의 시설 이용료를 적용하게 된다. 모빌홈과 카리반의 이용 시기는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예약문의: 지리산 다목적 캠핑장(055-880-2374)

설레는 캠핑을 완벽히 하는 Tip

캠핑!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렌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 없이 뜬 마음으로 캠핑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손전등 - 숲이 우거진 캠핑장의 어둠은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찾아온다. 그래서인지 캠핑장에서 맛는 밥은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 야외에서 밤을 지낼 때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손전등과 랜턴이다. 빛을 비추는 단순한 기능을 하는 손전등이나 랜턴은 다른 장비보다 소홀히 취급당하기 쉽다. 그러나 이 단순한 기능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필수 아이템임을 잊지 말자.

모기 퇴치 - 모기 퇴치 용품은 야외활동에서 역시 없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하나 스마트폰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보자. '스마트 플러스' 앱은 수컷모기의 날갯짓에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을 모아 만든 음원으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암컷 모기를 퇴치한다. 휴가 지역에 따라 도시, 비단가, 산·들판, 동남아시아, 전 지역 등 5가지 버전으로 실행이 가능하단다.

1g 차이가 무거운 짐을 줄인다 - 무게차이는 단 1g이라도 줄이는 것이 경쟁캠핑의 핵심이다. 물론 오토캠핑이라면 언제든 차에서 깨낼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일반적인 캠핑이라면 꼭 필요한 캠퍼 정신이다. 조금이라도 배낭의 무게가 줄어든다면 평소보다 피곤함이 덜하게 되고, 몸의 상태 또한 더욱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 캠핑 그 자체에 더 많은 여유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캠핑은 외부에서 모든 숙식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하면 고생길이 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있다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고 더욱 알찬 캠핑을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이제 캠핑족의 필수 아이템으로 부상했다. 길안내, 주변 정보, 비상시에는 주치의, 무료할 땐 놀이친구까지 톡톡히 한 뜻을 해낸다.

이외에도 정동진 등명해수욕장은 텐트, 테이블 등 무겁고 비싼 캠핑 장비를 가져가지 않아도 캠핑에 필요한 모든 것을 렌탈하여 사용할 수 있고, 안면도 캠프 1호점도 트레일러로 오토 캠핑촌을 형성하고 있어 럭셔리한 캠핑카는 물론 바비큐 파티도 할 수 있다.

예전의 '캠핑' 하면 바리바리 싸들고 깅낑대며 뜯기는 번거러움부터 생리적인 문제까지 불편한 점이 사실 꽤 있었다. 물론 진정한 아생의 원초적인(?) 즐거움은 또 니름의 멋이지만 말이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가족과 함께 호젓하게 자연에서 낳물을 즐길 수 있는 멋'이 있고, 밤새 모여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추억'의 캠핑으로 진정한 아생 버라이어티를 우리도 즐겨보자.

암과 우울증



이명훈 전임의 | 정신과

- 전문분야 : 소아청소년정신과, 성인정신과
- 진료시간 : 진료_ 월(오후), 수(오후), 금(오후), 종양스트레스클리닉(오후)
- 문의 : 정신과 ☎ 032-890-3880



2008년 1년 동안 국내에 새롭게 암으로 진단받은 암 발생자는 178,816명으로 2007년 165,942명에 비해 7.7%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수명은 80세까지로 생존 시까지 암에 걸린 확률은 34.0%로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암정보센터). 이런 현실에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암 환자의 10명 중 5명은 우울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거듭되는 상실에 대한 극도의 절망과 애도의 발현이기도 하다. 또한 암이 발생하면 뇌 속에 우울증 관련 신경전달물질의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물질은 감정을 관장하는 뇌 부위인 해마로 전달돼 우울증을 유발한다.

대개 암 진행속도와 함께 발병률이 더욱 높아져 말기암환자의 경우 70~80%까지 우울증을 호소한다. 암 환자가 우울증을 동반할 경우 암 치료에 대한 거부와 함께 심한 경우 자살을 고려하기도 한다. 따라서 심리적 안정을 통해 현실을 부정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암환자의 우울증은 신체적 특징보다는 심리적 특징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암환자 우울증 증상

첫째, 식욕부진, 불면증, 수면과다, 피로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평소와 달리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흥미와 관심 감소, 집중력 결여, 우유부단, 자존감 저하, 죄책감, 무기치함, 절망감 등을 호소할 경우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민감해지고 쉽게 화를 내는 경우에도 우울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

암환자의 우울증 증상이 확인되면 바로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좋다.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면 항암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높아지며 삶의 질을 향상 시켜준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치료 순응도가 떨어져 치료를 거부하게 되고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암환자의 자살 시도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 3배 정도 높으므로

로 주의해야 한다.

암환자의 우울증 치료에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지지도 큰 도움이 된다.

우울감이 있는 경우 환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암환자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도 긴 병 생활로 인해 우울감을 호소할 수 있으므로 가족치료나 그룹치료를 실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투병생활 동안 치료일기를 쓰거나,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을 하면 도움이 된다. 종교 활동을 하는 것도 우울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마음상태 점검표

증상	전혀 아니다	여러날 동안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1.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0	1	2	3
2. 가리앉은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0	1	2	3
3.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어남, 혹은 너무 많이 잠	0	1	2	3
4. 피로감, 기력이 저하됨	0	1	2	3
5. 식욕 저하 혹은 과식	0	1	2	3
6.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혹은 내 자신이 실패자라는 느낌, 나 때문에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	0	1	2	3
7.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려움	0	1	2	3
8. 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림. 또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 하지 못해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림	0	1	2	3
9. 나는 차리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혹은 어떤 면에서 건당신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생각들	0	1	2	3

* 표시한 모든 점수를 더해서 총 점수가 5점 이상이라면 주치의나 정신 건강 전문가와 상담을 받도록 권한다 종합 _____ 점

| 우울증, 치료할 수 있는 병

우울증(마음의 감기)

▶ 정신치료, 심리치료

▶ 항우울제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1. 자신의 병과 치료에 대해 받아들여,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합니다.
2.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일지 혹은 일기를 쓰십시오. 한 일과 생각을 기록해 두면 치료받는 동안 갖게 되는 느낌들을 더 확실하게 해주고 의사나 간호사에게 질문을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3. 주위 친구를 만나거나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 감정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4.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결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컨디션이 좋아질 경우에 할 일들을 계획해 봅니다.
5. 가능하다면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 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긴장감이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식욕도 둘우어 줄 것입니다.
6. 치료과정을 잘 대처했던 다른 암환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인하대병원 종양스트레스 클리닉 운영 : 여성암센터, 폐암센터_매주 화요일 오후

[상담문의] 여성암센터 032-890-2560, 폐암센터 032-890-3890, 암진료상담실 032-890-3600

여름철 자주 걸리는 장염 장염 예방의 기본은 손씻기!

무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는 여름철 불청객은 장염입니다. 여름철의 덥고 습기찬 환경은 세균증식에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장염은 식중독 또는 장점막의 세균 감염 등에 의해 장점막이 손상되는 병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음식 섭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식중독과 따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식중독의 원인을 알고 주변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면 여름철에 식중독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염의 원인

장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증상을 일으키는 기전에 따라 감염성 식중독, 독소형 식중독 등이 있습니다.

감염성 식중독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으로 살모넬라균은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균으로 열에 약하여 음식을 익히기만 하면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열이 충분하지 않거나 특히 최근 개, 고양이, 거북이 등 애완동물이 살모넬라균의 중요한 오염원으로 주목받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콜레라균은 오염된 식수나 음식물을 섭취하여 발생하며 콜레라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복통을 동반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과다한 쌀뜨물 같은 물설사가 생깁니다. 병원성 대장균은 설사, 장염을 일으키는 병원성을 가진 대장균으로서 해외 여행자에 자주 일어나는 여행자 설사의 원인균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노로 바이러스와 로타 바이러스가 대표적입니다. 위생관념이 발달하고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예전처럼 상한 음식을 섭취하는 일이 적어짐에 따라 근래에는 세균성 위장관염 보다는 바이러스성 위장관염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노로 바이러스에 의한 위장관염은 최근 모든 위장관염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주로 식수나 수영장의 물을 통해 감염이 되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도 감염이 가능하고, 전염성이 강하여 집단적인 발병 양상을 보입니다. 로타 바이러스는 주로 5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가장 흔하게 장염을 일으키며 오랫동안 그 원인을 몰라서 가성 콜레라로 불린 바 있습니다.

독소형 식중독 균에 독소에 의한 식중독으로 대표적으로 포도상구균과 보툴리눔 균이 있습니다.





방병욱 교수 | 소화기내과

- 전문분야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 진료시간 : 월(오전), 수(오후), 금(종일)
- 문의 : 소화기내과 ☎ 032-890-2224

포도상구균에 의해 생산된 독소는 가열을 해도 파괴되지 않아서 독소형 식중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음식물을 섭취한 지 24시간 후에 증상이 급격히 나타났다가 빨리 좋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툴리눔 식중독은 세균에서 생산된 신경독소에 의해 증상을 일으키는 신경마비성 질환으로 보관 상태가 나쁜 통조림이나 소시지를 섭취한 후 발생합니다. 신경증상은 가장 먼저 눈에 이상이 오고, 호흡근마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장염의 증상

주 증상은 복통과 설사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열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주로 위나 소장 등 상부위장관을 주로 침범하면 증상의 발현이 빠르고 구토가 주 증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장 등 하부위장관을 주로 침범하면 증상의 발현이 비교적 늦으며 설사가 주증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는 적개는 하루 2~3회 정도에서 많개는 20여 회가 넘는 경우까지 그 빈도가 다양합니다. 원인 물질에 따라 잠복기와 증상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음식물 섭취 후 72시간 이내에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탈수 현상은 설사의 가장 큰 해로 특히 어린이나 고령층에서 위험합니다.

장염의 진단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단순히 증상만 가지고는 그 원인균을 알 수 없으며, 분변배양검사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원인균이나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증상이 호전되게 됩니다.

장염의 치료법

장염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탈수 및 전해질 불균형의 적절한 교정입니다. 대부분 3~4일 정도면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1~2일 정도 시중의 이온음료를 마시고 안정을 취하고 시장기가 돌면 미움이나 묽은 죽을 조금씩 드시고 증상에 따라서 연식 및 일반식으로 점차 교체해 나가면 됩니다. 급성 장염시에는 지방이 많은 음식, 양념된 음식, 유제품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장을 자극하는 신 음식, 과일, 찬 음식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설사 증세가 있을 때 잘못 대처하는 것 중 하나가 속을 비워야 된다며 물조차 먹지 않고 아예 굶는 것인데 이는 잘못된 방법이고 탈수가 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수분섭취를 잘 못하거나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설사로 빠져 나가는 양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수액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혈변이나 점액성변, 혹은 발열이 동반되는 경우 같은 극히 일부의 경우 항생제의 사용이 고려됩니다.

장염의 예방법

여름철 장염의 예방을 위해서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은 손씻기와 청결한 음식물 보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장염의 감염 경로가 오염된 손을 통해 입으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자주 손을 씻는 것만큼 장염 예방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음식물은 완전히 익히고,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바로 먹습니다. 조리된 식품은 2시간 이내에 냉장보관하여 관리하고, 다시 이용할 경우에 완전하게 재가열한 후에 먹습니다. 여름철 날 음식이나 회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럽 장출혈성대장균

음식관련 감염 예방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

2011년에는 다른 해보다 언론보도에서 자주 '슈퍼박테리아'라는 단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슈퍼박테리아'는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여러 항생제에 내성을 가져서 치료가 어려울 수 있는 세균을 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언론보도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보도된 '슈퍼박테리아'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된 것은 요즘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장출혈성 대장균 O104:H4입니다. 많은 사망자를 내며 유럽의 식탁에서 채소를 사라지게 했던 이 슈퍼박테리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여름철에 음식과 관련된 감염질환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백지현 전임의 | 감염내과

- 전문분야 :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밸류질환
- 진료시간 : 월(오후), 수(오전), 금(오전)
- 문의 : 감염내과 ☎ 032-890-2216, 2219

사람의 장 속에는 정상적으로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장균’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위장관 속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세균입니다. 대부분의 대장균은 사람의 위장관 속에서 병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사람에게 이로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대장균들은 위장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가벼운 설사에서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감염까지 다양한 감염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장관 감염을 일으키는 대장균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여러 차례 유행을 일으키며 ‘대장균(E.coli) O-157’로 언론에 보도되었던 대장균 O157:H7입니다. 이 세균은 ‘장출혈성 대장균’에 속하는데, 장출혈성 대장균은 급성 출혈성 설사를 일으키는 강력한 독소를 갖고 있고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균성 장염에 항생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에서는 항생제 사용이 질환을 악화시키므로 피해야 합니다.

지난 5월부터 독일 북부에서 시작되어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대장균 O104:H4는 O-157과 같은 ‘장출혈성 대장균’에 속하면서, 장 세포에 잘 달라붙는 또 다른 특성을 함께 갖고 있어서 합병증을 잘 일으키는 변종 대장균입니다. 지금까지 유럽 및 북미에서 400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해서 5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이 중 900여명이 혈액세포가 깨지고 콩팥기능이 저하되는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라는 합병증을 겪었고, 이 합병증을 겪은 감염자 중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장균에 의한 감염질환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거나, 일부는 감염된 환자와 접촉한 사람에서 발생합니다. 이번 장출혈성 대장균 O104:H4 감염은 대부분 독일에서 발생하였고, 이 외의 나라의 환자들 중에는 독일에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많아서 독일에서 섭취한 음식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이, 새싹채소, 호로파 씨앗 등이 오염원으로 지목되면서 무역분쟁까지 일으키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오염원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음식관련 감염의 예방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적인 음식관련 감염의 예방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음식관련 감염의 예방을 위해 꼭 지켜야 할 다섯 가지]



1. 음식을 준비하기 전과 준비하는 중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꼭!
2. 음식재료는 날 것과 익힌 것을 반드시 구분해서 보관하고, 조리기구도 따로 사용합니다.
3. 육류, 어패류, 계란을 충분히 익히고, 국물 요리는 70°C 이상으로 조리합니다. 익힌 음식을 다시 데울 때에도 충분히 가열합니다.
4. 조리한 음식을 실온에 2시간 이상 두지 않고, 가급적 빨리 냉장보관합니다.
5. 냉장고에서도 너무 오래 보관하지 말고, 얼린 음식을 해동할 때는 실온에서 해동하지 않습니다.
6. 안전한 물과 신선한 음식재료를 사용합니다. 야채/과일을 익히지 않고 먹을 때는 깨끗하고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서 먹습니다.

이에 덧붙여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유럽지역에서 새싹채소나 콩나물 등을 먹을 경우에,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은 후, 70°C 이상에서 충분히 조리해서 먹고, 조리한 후의 조리기구나 손을 충분히 씻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은 평년보다 무덥고 기온이 높은 날씨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기온이 높은 여름에는 대장균을 비롯한 세균들과 여러 독소에 의한 장염 등 음식관련 감염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유럽을 방문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보내실 여러분들도 음식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다섯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생충, 간디스토마와 건강관리 민물고기의 생식을 피하며 주방기구의 청결 유지

기생충이란 지구상에 공존하고 있는 생명체이나 스스로 생활이 불가능하여 다른 동물체에 의존하여 체내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는 생물체로 볼 수 있으며 인간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하여온 시·공간의 공존체이기도 하다. 인간 사회에 미치는 기생충의 영향을 살펴보면 감염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과 개인의 영양장애로 인한 성장과 발육 지연, 합병증 초래와 경제적인 손실이나 사회적인 문제 야기 등의 간접적인 영향을 들 수 있다.



글 · 김동수 교수

|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기생충학교실

기생충 감염으로 인한 병변에는 여러 종류의 장애나 자극, 염증유발, 독성물질 산출, 미생물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장해를 제공하여 건강상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본란에서는 우리나라에 토착화되어온 간디스토마를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건강관리에 필요한 일반적 상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과거 1960대와 1970대에 우리나라를 기생충 왕국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국민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기생충에 감염된 상황인 기생충의 누적 양성률이 120%에 달하였으며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등의 토양매개성 기생충이 주요 기생충이었다. 이와 같이 국민 보건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 기생충 질환을

퇴치하기 위하여 정부와 대한기생충학회는 지대한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관리사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우선 1966년에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공표하였으며 학회 및 협회를 통한 30여년간의 집중적인 집단 관리사업⁽¹⁾을 시행한 결과 전국민 대비 기생충 감염률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었으나 2000년대에 들면서 우리나라 기생충 감염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간디스토마 감염 원인

우리나라 기생충 감염상을 주도하였던 토양매개성 기생충인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 등의 감염률은 0%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패류매개성 또는 식용동물 매개성 기생충인 간디스토마(간흡충), 요코가와흡충 및 이형흡충류 등은 지속적인 감염률을 보였다. 특히 간디스토마의 경우, 2004년의 결과는 1997년에 시행된 제6차 전국 장내 기생충 감염실태조사 때보다 오히려 증가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의 주요 원인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의 생식을 좋아하는 식생활 습성을 들 수 있다. 패류매개성 또는 식용동물매개성 기생충은 유행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이 높게 유지되는 특성이 있으며 유행지역의 형성은 중간숙주나 보유숙주의 유·무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간디스토마는 간흡충 또는 간토질이라기도 하며 폐디스토마와 요코가와흡충과 같이 우리나라 3대 흡충으로 알려져 왔다. 생활사를 살펴보면 몸 밖으로 배출된 충란(알)은 제1중간숙주인 왜우렁(쇠우렁) 또는 몇 종류의 담수산 패류에 먹힌 후 유미유충으로 발육되어 제2중간숙주인 잉어나 붕어 종류의 민물고기(담수어)⁽²⁾에 침입하여 인체에 폐해를 줄 수 있는 감염형인 피낭유충으로 발육된다. 간디스토마 감염은 이들 피낭유충이 감염되어 있는 자연산 민물고기를 생식하였을 때⁽³⁾ 일어나며 몸속에 침입한 피낭유충은 약 3~4주 후에 성충이 되어 간담관에서 생활하게 된다. 간디스토마로 인한 병변은 충체 자체로 인하여 담관이 막히거나 또는 그 배설물에 의하여 담관에 염증이 생긴다. 증상은 만성으로 진행되며 소화불량, 횡달, 간비대, 비장종대, 복부팽만, 담관염 등이 나타나고 담관염이 오랜 기간 진행되면 담

관암이 된다. 이런 이유로 2009년에 세계보건기구(WHO)는 간디스토마를 담관암을 일으키는 생물학적 발암원인체로 공식 인정하였다.

간디스토마 검사

대변검사, 초음파검사, 면역혈청학적 검사 등 몇 가지 방법이 있으나 가장 확실한 확진법은 충란을 검출할 수 있는 대변검사이다. 간디스토마 검사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나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더 큰 기관으로는 국립보건연구원의 기생충과에서도 가능하다. 간디스토마증은 흔히 알려진 광범위 구충제로는 치료가 되지 않으며 프라지퀴텔(praziquantel)이 간디스토마증의 치료 효과에 탁월하다. 용량은 체중 1kg 당 25mg을 1일 3회로 1~3일간 투여하나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간디스토마 예방법

간디스토마 예방은 자연산 민물고기를 생식하지 않는 것이며 특히 자연산 민물고기를 요리한 후 주방 기구류(도마, 칼 등)의 깨끗한 세척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간디스토마 감염은 생식하므로서 이루어지나 전혀 생식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도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는 주방 기구류를 통한 감염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생충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알 수 있는 관련된 몇 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의 NIH 정보제공 사이트 중 기생충나라(//www.nih.go.kr/nih/index.jsp)에는 많은 기생충 자료와 교육 동영상자료 및 기생충박물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대한기생충학회의 아틀라스웹(//atlas.or.kr/)에도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기생충에 관한 정보를 쉽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활동 중인 간디스토마 성충의 모습

(1) 전 국민을 대상으로 1971년 제1차 전국 장내기생충 감염실태 조사사업을 시작으로 1976년 제2차, 1981년 제3차, 1986년 제4차, 1992년 제5차 및 1997년 제6차 조사사업이 약 5년 단위로 총 6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2004년도에 제7차 조사사업(질병관리본부/한국간강관리협회, 2004)이 실시되었다.

(2) 제2중간숙주로 알려진 잉어와 담수어로는 약 40여 종이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종으로 붕어, 참붕어, 잉어, 모래무치, 물개, 강준치, 침중고기, 누치 등이 있다.

(3) 흔히 1급수 하천으로 분류되는 깨끗한 물속에 사는 담수어에는 기생충이 없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수질 환경 개선을 통하여 담수어의 서식 환경이 좋아짐에 따라 제1,2중간 숙주 및 기생충에 감염된 물고기가 증가되어 이들 담수어를 생식할 경우 기생충 감염률이 높아질 수 있다.

시간대별 운동 효과, 아침 VS 저녁운동

아침 식사 전 다이어트 효과 최대, 성장기 아이들 야간 운동이 키 큰다!!

글 · 김치종 운동처방사 | 비만센터



이른 아침에 운동을 하거나 회사를 끝내고 밤에 운동을 즐기는 등 운동 시간이 다양해지면서 시간대에 따른 운동 효과에 대한 궁금증 또한 높아져 가고 있다. 그래서 '언제 운동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되려 질문을 던지게 된다.

'과거 혹은 현재 운동을 할 때 어느 시간대에 하는 것이 좋으세요?'라고..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비슷할 꺼 같지만 신기하게도 답은 한 가지가 아니다. 이른 새벽이나 오전이 좋다는 분, 저녁이 좋다는 분 또한 식사시간과 관련해 공복이 좋다와 식후 2시간만 지나면 관계없다 등 다양한 대답들을 들을 수 있다. 과연 어느 것이 맞을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맞는 답일 수도 있고 틀린 답일 수도 있다. 운동 효과가 시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지만 운동 목적에 따라 가장 효과 있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최적의 운동 시간으로 꼽는 아침과 야간에 대해 비교해보자.

아침운동 -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수면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제격

규칙적인 운동 습관 유지 누구나 그렇듯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은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다. 아침 운동은 저녁 운동에 비해 규칙적으로 시행하기에 좋다. 오후나 저녁 시간 때 사람과의 약속 등 운동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놓이게 된다. 반면 아침에는 이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아침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기질 수 있을 것이다.

상쾌한 하루 시작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어느 때보다 기분이 상쾌하다. 아침에 분비가 왕성한 아드레날린 계통 호르몬의 영향이다. 아침운동은 이런 아드레날린 계통 호르몬이 더욱 많이 분비되도록 돋는다. 당연히 아침운동을 한 이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체중 감량(다이어트) 효과 만점 7~8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한 후 운동을 하게 되면 피하와 간에 축적된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 아침식사 전에 하는 운동은 이런 조건에 안성맞춤. 잠을 자는 동안 자연스레 7~8시간 이상의 공복이 지속된다.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 식사 전에 하는 운동은 그 어떤 시간대의 운동보다 다이어트 효과가 크다.

질환별 효과 지방간이 있거나, 중성지방 ·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도 아침운동에 나서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 뇌졸중과 심장병 환자의 경우 여름철에는 관찰지만 일교차가 심하거나 추운 겨울철 아침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라면 공복 상태로 운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인개가 낀 날 아침운동은 독이라는 것이 정설처럼 퍼져 있지만 심한 천식이나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경우가 아니라면 건강 상에 큰 위험은 없다.

아침운동, 이런 점에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식사 전에 운동을 해야 한다. 식사 후에 하는 운동은 소화 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또 식사를 통해 섭취된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운동 에너지로 쓰이므로 아침 운동의 장점인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없다. 단, 당뇨병 환자라면 식사 후 운동을 하는 편이 낫다.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운동은 올라간 혈당을 효과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이다. 또한 준비운동은 필수적이다. 아침에는 근육이나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효과의 움직임도 둔하다. 한마디로 아침의 몸은 운동 준비 상태가 아닌 안정상태다. 때문에 운동에 들어가기 전 운동을 하기 위해 적합한 상태로 몸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준비운동이다. 준비운동에 적당한 시간은 10분. 근육과 인대를 서서히 늘여주는 스트레칭을 통해 신체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아간운동 - 아침잠이 많고 밤에 늦게 자는 사람에게 적격

몸의 신진대사 증가 이 시기에 운동을 하면 부신피질 호르몬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분비량이 다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증가한다. 이를 호르몬은 몸의 신진대사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신체의 각성도를 높이고, 운동 효과 또한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면역력 증강 · 노화방지 효과 아간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후 뇌에서 멜라토닌과 성장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 성장호르몬은 아이들의 키를 크게 하는 데 필수적인 호르몬. 어른들에게는 노화방지 효과가 있다. 멜라토닌도 마찬가지. 항산화 기능이 있어 면역력 강화와 노화방지에 도움 된다.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이 아간운동을 하면 키가 더 잘 자라고, 어른이 아간운동을 하면 면역력 증강과 노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스트레스 해소 운동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 특히 아간운동은 하루 동안 스트레

스로 지친 자율신경을 달래주는 효과가 탁월하다. 때문에 소화불량, 두통, 오통, 변비와 설사, 불면증 등 현대인에게 흔한 스트레스 증상들을 치료하는데 제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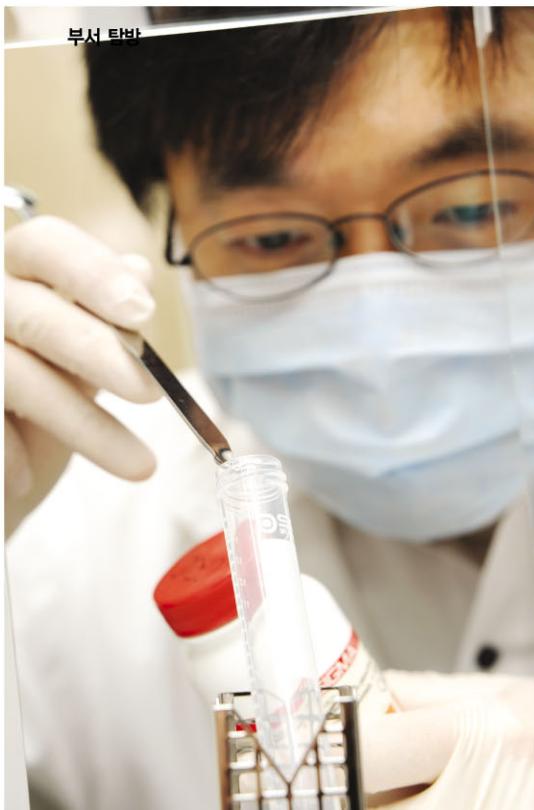
질환별 효과 아간운동은 혈당을 효과적으로 떨어뜨려주고 하루 종 밤에 혈압이 낮기 때문에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에게 좋다. 단 당뇨 환자의 경우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게 되면 잠을 자다 저혈당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간운동, 이런 점에 주의해야 한다 운동은 몸을 적당히 피곤하게 만들어 주어 숙면을 돋는다. 하지만 잠잘 시간 바로 전까지 운동을 하는 건 금물.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의 온도가 높아지고 교감신경이 흥분하여 잠자기의 적당하지 않은 몸이 된다. 때문에 늦어도 잠자기 1시간 전에 운동을 끝내는 것이 좋다. 또한 사우나나 뜨거운 물이 담긴 옥탕에 들어가는 목욕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잠자리에서는 몸의 체온이 평상시보다 내려간다. 몸의 각 기관의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몸의 체온이 내려가는 건 잠을 잘 자기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운동을 한 후 체온을 재보면 평상시보다 높이 올라가 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이 체온을 효과적으로 내려주는 것이 필수다. 운동 후 약간 차기운 물로 샤워를 하면 효과적으로 올라간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다.



시간대에 따른 운동의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보았으나 필자는 시간대에 따른 운동의 효과를 생각하기에 앞서 각자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찾고 시행하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 생각된다.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여쭤보면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를 드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런 답을 들을 때마다 진실 혹은 거짓의 갈림길에서 생각해본다. 정말로 운동할 시간이 없는지 아니면 의지 부족 등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인데 '시간이 없다'라는 적당한 핑계거리를 삼는 건지. 이런 새벽부터 밤까지 학교와 학원에 가야하는 학생,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봐야 하는 주부, 최근에 잊은 직장인, 고대 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습관을 가지는 분 등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보니 정작 운동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고 이는 시간이 없다는 말로 대신하는 것 같다. 각자의 생활 패턴은 매우 다양하다. 과연 내가 운동 시간을 30분 이상 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30분 이상 내기 어려우면 2~3회 걸쳐 쪼개서 실시할 수 방법이 있는지(효과는 같다) 생각해보고 시간대별 운동의 효과에 앞서 각자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찾고 실천에 옮기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한다.

※ 문의: 비만센터 | 032-890-3360 / 건강증진센터 | 032-890-3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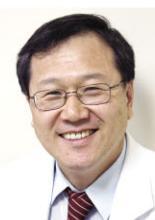
첨단 의과학 연구를 선도하는 인하대병원 임상연구센터

임상연구센터 연혁

1998. 03. 01	임상중앙연구소 개설(병원 3층)
2005. 10. 15	임상의학연구소로 조직개편(임상연구센터, 연구시험센터, 연구지원실)
2006. 08. 25	성체줄기세포 연구협약 체결(대한항공, 인하대신학협력단)
2006. 06. 16	임상연구센터 확장 이전(정석빌딩 A동 2층)
2007. 08. 01	국가지정 연구실 NPL 선정(서준규 교수, 음경·혈관 신경조절연구실)
2008. 08. 01	환경부지정 일례르기질환 환경보건센터 선정(센터장, 손병관 교수)
2008. 09. 01	호미오세리파(주) 법인 설립(연구소장, 송순욱 교수)
2009. 01. 02	유타·인하 DDS 및 신의료기술 공동 연구소 법인 설립(공동대표, 이돈행 교수)
2009. 03. 01	임상의학연구소 조직 개편(국책연구사업단 신설, 연구지원팀으로 개편)
2010. 03. 01	임상연구부로 조직 개편(연구부원장, 김철웅 교수)
2010. 05. 27	보건복지부 지정 소화기질환 의료제품 유효성평가 서비스센터 선정(센터장, 서준규 교수)
2011. 05. 23	보건복지부 지정 성의학특성화센터 선정(센터장, 서준규 교수)
2011. 05. 25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줄기세포 선도연구센터 선정(센터장, 송순욱 교수)

VISION 센터 VISION

임상연구센터는 임상 각 과들과의 협력연구와 자체연구를 통하여 임상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하여 새로운 치료법들을 개발하고 치료기전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자 한다. 기초 및 임상연구들을 진행하면서 우수한 국제 SCI 연구 논문들을 발표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들을 수행하여, 명실상부한 첨단 의과학 연구들을 선도' 하는 대학병원 연구센터로서의 위상확립과 인류 건강증진에 공헌하고자 한다.



연구인력 현황

센터장: 신경외과_ 박현선 교수(사진좌측)

연구교수: 전임연구교수_ 송순욱, 흥순선, 촉탁교수_ 전명신, 이택기

병원소속 직원: 센터관리과장_ 박광원, 계약직연구원_ 이희승, 나광민

각 과(실)소속 개인 연구원: 37명

총 연구인력: 45명

센터 상주 연구실(과) 현황 - 총 16개 연구실(과)

성체줄기세포연구사업단_ 송순욱(국가지정 줄기세포 선도 연구센터 선정, 호미오세리파(주) 연구소 운영) / 음경·혈관신경조절 연구실_ NPL, 서준규, 류자간

(병원 성의학 특성화 센터 선정) / 항암제개발 연구실_ 흥순선 / 당뇨비만 연구실_ 남문석 / 면역학연구실_ 전명신 / 류마티스내과_ 박원 / 피부과_ 최광성 /

방사선종양학과_ 김우철 / 안과_ 진희승 / 이비인후과_ 임재열 / 이비인후과_ 김규성 / 비뇨기과_ 이택기 / 감염내과_ 정문현, 이진수 / 치과_ 오남식, 윤정호 /

환경보건센터연구실_ 손병관, 임대현, 김정희 / 유효성 평가센터 연구실_ 이돈행, 송순욱, 흥순선

성체줄기세포연구사업단

국가지정 줄기세포 선도연구센터 선정(2011. 5. 25)

성체줄기세포 연구사업단은 단장으로 송순욱 교수, 비임상연구팀장으로 전명신 교수와 이택기 교수, 임상시험 팀장으로 김준형 박사, 그리고 18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사업단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현재의 치료법으로는 치료하기 힘든 난치성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성체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하여 난치성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원활한 국내외 임상시험 진행을 위하여 대한항공 재단의 도움을 받아 호미오세라피주라는 기업을 계열사로 설립하였고, 연구를 통한 병원수익 창출이라는 연구중심병원의 목표도 같이 이루고자 계획하고 있다.

주요 연구 활동으로는 원천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성체줄기세포치료제를 생산하여 여러 난치성 질환별 동물모델들에서 효과성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면역 및 엔증질환 동물 모델들에서 치료효과를 확인한 결과, 이식편대숙주반응질환, 급성췌장염, 패혈증, 아토피 피부염, 천식의 치료 및 류마티스 관절염 예방에 성체줄기세포치료제가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돈행, 홍순선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한 급성췌장염 치료 가능성 연구결과는 소화기내과 분야의 최고 권위 학술지인 Gastroenterology 3월호에 게재하여 임상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2010년 8월에는 식약청으로부터 제1상 임상시험 허가를 받고 이식편대숙주질환(GMHD)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을 현재 인하대 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병원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사업단은 또한 2011년 5월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줄기세포선도연구팀”으로 선정되어 5년간 5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게 되었다. 본 사업단은 우선적으로 면역 및 엔증과 관련된 질환들의 근본적 치료를 위하여 차세대 성체줄기세포치료제를 적용할 것이고 점차적으로 타 질환들과 조직재생 분야로 넓혀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줄기세포치료제 치료를 활용하여 인하대병원의 특화된 발전과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음경-혈관 신경조절연구실(국가지정연구실, NPL)

보건복지부 지정 병원 성의학 특성화 센터 선정(2011. 5. 23)

서준규 교수를 중심으로 류지간 교수, 김우진 연구교수, 김해영 연구교수, 대학원생 3명, 연구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음경-혈관 신경조절연구실은 2011년 5월 보건복지부 지정 병원 특성화 연구센터로 선정되었다. 정부로부터 5년 동안 매년 1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현재 발기부전의 치료는 Viagra를 위시한 경구용 약물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구용 치료는 신경인성 요인, 진행된 혈관성 발기부전을 포함한 상당 수의 환자에서는 효과부족, 적지 않은 부작용과 금기증, 그리고 근본적 치료제가 아님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본 특성화 연구센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성기능장애의 근본적인 치료법 개발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성기능장애 병인에 근거하여 발기조직을 재생시키는 맞춤형 국소치료제를 개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4개의 세부과제와 2개의 위탁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원내외에서 성기능장애 치료용 단백질, 유전자, 그리고 줄기세포를 원천개발하고, 이들을 각 원인질환에 따른 동물모델에 적용하여 효과를 판별하는 중개연구로 이어지며, 여기서 도출된 후보 치료물질은 바이오회사에서 인체에 적용될 수 있게 최적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이러한 연구의 과정은 임상시험의 가능한 IND (Investigational New Drug) filing을 종착역으로 진행된다. 또한, 성의학 특성화 연구과제의 내용 중 일부는 약물의 효과를 판별하는 유효성 평가시스템을 확립함에 있다. 즉,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되는 성기능장애 관련 신약 후보 물질의 효과와 신약으로서의 가능성을 본 연구진이 개발한 다양한 병변-특이 생체내 동물모델과 생체외 연구모델을 통하여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유효성 평가사업은 미래 연구병원의 수익형 모델이 될 수 있기도 하다. 세부과제 연구자 및 공동연구진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원천기술 개발연구를 통해서 성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음경의 병변을 근본적으로 재생 또는 회복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가 임상에서 유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항암제 개발 연구실

홍순선 교수가 지도하고 있는 항암제 개발 연구실은 정경희, 이현승 연구교수와 박사과정 3명, 석사과정 2명,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암, 췌장암 등의 난치성 암의 원인인 PI3-Kinase를 타겟으로하여 KAIST, 화학연구원과 공동으로 항암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PI3K는 암세포의 성장, 생존, 전이, 혈관 신생 등을 매개하는 세포 신호 전달체로서 이를 분자레벨에서 저해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겠다는 전략으로 연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연구재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사업, 임정복 과제를 수주하여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벤처 회사와 함께 헬미꽃 등의 식물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하여 간암, 대장암에서의 효능에 관한 전임상 시험을 끝내고 본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호흡기내과와 병리과와 함께 그 기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고 있으며, 현재는 호흡기내과와 병리과와 함께 그 기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급성 췌장염 치료효과와 기전 연구에 대해 이분야 최고 저널인 Gastroenterology (IF=12.9)에 게재한 바 있다.



면역학 연구실

전명신 교수가 지도하고 있는 면역학 연구실은 나광민, 유현승, 이대현 연구원이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참여 교수로는 송순욱, 이택기, 최문호 교수와 6명의 교수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면역이란 한마디로 방어시스템을 조절 유지 시키는 기능으로 외부침입에 대한 방어와 자기 공격으로부터 방어로 크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에 의해 외부방어시스템이 무너지면 감염질환이 자기제어 방어시스템이 무너지면 류마티스관절염, 당뇨병, 천식 등의 자가면역질환이 생긴다. 본 연구실은 면역세포인 T 세포와 B 세포의 활성화를 조절하는 기전을 연구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단백질 분해에 관여하는

CbH와 Itch라는 단백질이 T 세포의 활성에 직접관여 한다는 내용으로 면역자널 "Immunity" (IF=20) 7월호에 게재하였다.

최근에는 인하대병원 임상연구센터 송순욱교수님과 함께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면역질환치료효과 및 면역세포에 미치는 기전을 연구하고 있으며 아토피 피부염, 천식, 패혈증, 류마티스 관절염, 이식편대숙주질환 등의 생쥐 질환모델을 이용해 난치성 질환들의 치료를 위해 성체줄기세포를 동물모델에 주입해 줄기세포가 치료효능을 갖고 있음을 관찰하였고, 현재 치료기전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 중이다.



2012년부터 새롭게 펼쳐질 연구중심병원 시대를 맞아 임상연구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구축해온 연구인프라들이 연구중심병원의 발전에 큰 밑거름들이 될 것이다.

명실상부한 연구중심병원으로 자리잡고, 병원의 참된 연구문화를 선도해 나가 난치성 환자들에게는 새로운 치료법들을 제공하고, 병원에는 연구를 통한 수익증대와 더 큰 발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임상연구센터가 되기 위하여 소속되어 있는 교수진들과 연구원들은 앞으로도 가지고 있는 능력을 모두 활용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다.

Clinical research center



2011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마음의 평화가...

글 · 박상돈 전임의 | 심장내과

내 인생의 첫 번째 해외의료 봉사 활동을 우연한 기회에 다녀 오게 되었다. 참으로 부끄럽게도 나는 의대 재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별히 의료 봉사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 흔한 의활(농활) 한 번 가보지 않았으니 말이다.

작년에 이어 우리병원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료 봉사와 달리 일반내과, 안과, 정형외과, 소아과 및 심장내과를 축으로 심장초음파를 포함한 각 과의 전문장비를 구비하여 보다 세밀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봉시단으로 2차 우즈베키스탄의료봉사를 떠났다.

1년 전 우리병원 심장내과에서는 선천성 심질환 중 하나인 심방증격결손을 가진 우즈베키스탄 환자를 성공리에 수술을 했던 경험이 있었고, 작년 봉시단의 일원이었던 교수님의 조언에 의하면 대부분의 환자는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하혈성 심질환 및 몇몇의 선천성 심질환 소아일 것이라는 말씀에 큰 걱정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평소 사진에 관심이 많던 나는 길가에 널려 있다는 우즈벡 미녀들을 사진에 담아 오리라는 철없는 생각으로 무거운 DSLR 카메라와 렌즈2개(망원렌즈포함), 가벼운 청진기 하나를 챙겨 우즈벡으로 향하였다.

떠나기 전 찾아본 지식검색을 통해 우즈벡은 한반도에 4배에 해당하는 넓이로 종족은 우즈베키인이 80%, 러시아인(5.5%) 및 소수의 고려인을 포함하여 20여 인종으로 구성되어있고, 독립이전에는 러시아어를 사용하였으나, 독립 이후에는 우즈베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종교는 90%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고, 경제는 면화를 중심으로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1인당 GDP는 2000 달러 정도의 나라라는 지식을 갖게 되었다.

우즈벡의 수도인 타슈켄트에 도착하여 느낀 첫 번째 인상은 “너무 더운데”였다. 하지만 호텔로 향하는 길에 본 타슈켄트 시내는 생각보다 잘 정돈된 도로를 갖추고 있었고 고층 건물은 많지 않지만 비교적 깨끗한 집과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이런 타슈켄트의 모습이 다시 한번 순탄할 것만 같은 봉사활동을 기대하게 했다.

드디어 첫날, 작년과 마찬가지로 타슈켄트 시내에 있는 의료봉사재단이 운영하는 진료소에서 의료 봉사가 시작되었다. 진료실

은 몇몇의 기증받은 의료 기구들로 나름 잘 정비되어 있었고, 진료가 시작되기 전부터 건물 밖에는 멀리서 온 듯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서성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심장내과에서는 병의 진단에서 심장초음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번 의료봉사에서도 고가의 심장초음파 기계와 빼어난 실력의 강디래 초음파 간호사를 중심으로 진료가 진행되었다.

쉼 없이 이어진 4시간여의 오전 진료를 마칠 때쯤 나는 후회하기 시작했다. '아 카메라 대신 책 몇 권 가져올걸' . 그날 진료를 본 환자의 80%정도가 선천성 심질환을 가진 소아들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산모가 산전 진단을 받고 아이가 출생 후에는 비교적 빠르게 병이 진단되고 의료보험을 통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진단되지 않은 선천성 심질환 소아가 많지 않다.

하지만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우즈벡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1차 진료는 비교적 광범위하고 접근 성 있게 이용 가능하지만 병의 진단 이후 치료할 의료기관의 부족 및 고가의 치료비로 인하여 대부분의 소아들이 병의 진단 후에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중에는 빠른 수술을 필요로 하는 복

집심기형을 가진 환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검사 내내 울음을 그치지 않던 신생아부터 단지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 온장난구리를 포함해 20~30여 분간의 초음파 검사를 통해 첫날 30여 명의 선천성 질환 소아를 만났다. 대부분 심방중 격결손 및 심실중격결손 환자로 정기적인 검시를 통해 수술의 필요유무 및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환자였지만 그 중에는 빠른 수술을 필요로 하는 팔롯 4증(teratology of Fallot)과 치료 되지 않은 대혈관 전위(Uncorrected TGA)같은 복잡기형 환자도 흔치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날 나는 첫번째 우즈벡 미녀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의 병마와 상관없이 밝은 미소와 맑은 눈망울로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곁에 아이 손을 잡고 있는 어머니들은 하나같이 무표정, 아니 근심 어린 얼굴과 무언가를 나에게 간절히 원하는 듯한 촉촉한 눈시울을 보였고, 그 속에서 우리네 엄마와 같이 자식을 걱정하는 안쓰러운 엄마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후 4일간의 의료 봉사에서 더 많은 선천성심질환 소아환자를 만났다. 초음파검사 통해 몇몇 환자들은 선천성심질환이 자연적으로 소실된 것이 확인되었고, 그 결과를 듣고 기뻐하는 부모의 얼굴과 '감사합니다'를 연신 외치던 모습에서 조금이나마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환자들에게 빠른 수술이 필요하며 예후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말 밖에 할 수 없는 나의 냉정함에 어쩔 수 없는 미안함이 또한 크게 다가왔다.

2일간의 타슈켄트 의료 봉사를 마치고 우리 봉사단은 2번째 의료봉사 예정지인 나보이로 이동하였다. 나보이는 수도인 타슈켄트보다 낙후된 지역으로 대한항공 물류센터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역시 이곳에서도 작년과 같은 공항 근처의 보건소에서 2일

간의 봉사 일정이 시작되었다. 진료가 시작되자 낮 익은 얼굴의 첫 번째 환자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 왔다. 다른이 아니라 작년에 우리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았던 18세 소녀 헤이다로바였다. 그녀의 밝은 표정과 건강한 모습을 다시 보게 되어 반가웠고 조만간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말에 또 한번 놀랍고 기뻤다. 사실 생각지 못했던 수많은 중증의 심장기형환자들을 접하고 도움이 많이 되어 주지 못했다는 죄스러움으

사진 속
그녀들의 모습에는
그 삶 속에도 행복이 있음을
짐작하게 해주었던
수줍은 미소가 있었고,
절대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만 같은
소녀들의 모습이 보였다.

로 봉사활동에 지쳐있을 무렵, 그녀의 방문은 나에게 다시 활력 소가 되었고 그녀는 나에게 우즈벡에서 만난 두 번째 미녀가 돼 주었다.

나머지 의료봉사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기 전 나보이에서 한 시간 거리의 부하라를 방문할 기회가 주어졌다. 티무르 제국의 융성과 이슬람의 문화가 꽂 피웠던 도시답게 건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채와 화려한 이슬람 사원들이 그들만의 역사를 간직 한 채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유적지와 부하라의 전통 시장을 둘러보던 중 다시 나의 눈에는 한여름의 햇볕 아래서 수줍은 미소를 보이며 어린아이를 안고 물건을 팔던 아녀, 흙을 빚어 만든 피리를 재주 있게 불어주던 소녀와 시장 한 곁에서 무언가 공부를 하며 매대를 지키던 소녀가 깊숙이 들어왔다. 웬지 그네들만의 알 수 없는 복잡한 사연들이 이곳으로 내 몰았을 것 같은 모습에 나는 이방인으로서 쓸데없이 그녀들의 속 모를 사정



▲ 작년 본원에서 수술받은 헤이디로비 양(아랫줄 맨 오른쪽)



▲ 진료중인 안과 오중협 교수



▲ 흥미리를 불던 소녀



▲ 2차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 단체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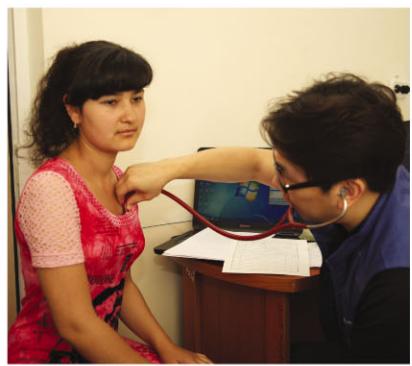
▲ 흥미리를 불던 소녀

이 한동안 안쓰러웠다. 하지만 사진 속 그녀들의 모습에는, 그 삶 속에도 행복이 있음을 짐작하게 해주었던 수줍은 미소가 있었고, 절대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만 같은 소녀들의 모습이 보였다. 여기서 나는 세 번째 우즈벡 미녀들을 사진에 담을 수 있었다.

이번 의료 봉사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뿐 아니라 타성적인 일상에 갇혀 있던 나 자신에도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저마다의 자리에서 묵묵히 수고하신 이홍식 단장님과 오중협 교수님을 필두로 한 2차 우즈베키스탄 봉사단 구성원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였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의료 봉사를 통하여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마음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기도하며 마음 속으로 나만의 기도를 주절거렸다.

“인실라(신이 뜻하시는 대로) 우즈베키스탄”.



▲ 18세 소녀 헤이디로비와 심장내과 박상돈 전임의 필자



▲ 책을 읽으며 매대를 지어던 소녀



행복 행복 마을 만들기



▲ 해피플래너 멤버들(좌측에서 세번째가 김복실 씨)

“과연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회의적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가장 큰 보람은
‘열심히 노력한 만큼
해냈다’는
성취감이겠죠.”

흔히 ‘벼슬살이는 머슴살이’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이를 실천하는 공직자, 공무원은 그리 많지 않다. 진정한 공복(公僕)이란, 국민에게 봉사하며, 국민의 종노릇을 하는 공직자다.

인천 최대의 빈민촌으로 유명한 만석동 쪽 방촌(일명 ‘아카사키촌’)을 행복마을로 바꾸기 위한 청사진이 제시되어, 오는 8월부터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동 작업장이 건립될 예정이다. 아카사키촌의 행복마을 로드맵은, 최소 12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다.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그간 빈민촌이란 불명예를 딛고, 인천 서민의 생활상이 보존된 향수(鄉愁) 산업의 디딤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 프로젝트를 준비해온 숨은 일꾼들 중에, 인천 동구청 공무원들의 학습모임 ‘해피플래너’와 이를 이끄는 김복실 팀장(주민생활지원과)이 있다.

강화도 출신으로 공무원 재직기간만 어느덧 30년 차에 이른 김복실 씨와 해피플래너는, 이곳 아카사키촌(이름의 유래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일제 점령기 부둣가 홍등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됨)이 행정안전부 주최 전국 희망마을 중 한 곳으로 선정되는데 일등공신의 역할을 했다. 도시 영세민들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의 월 관리비|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빈곤층들, 그것도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아카사키촌은 절반이 넘는 가구가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이용하고 있고, 겨울철 연탄으로 난방을 해결한다.



Happy Planner



▲ 해피플래너의 아카사키촌 주민실태 분석



▲ 해피플래너의 아카사키촌 현장 주민의 소리

이곳의 주민 431세대 271명을 대상으로 해피플래너는 15일간에 걸쳐 주말마다 현장을 누비며 면담을 진행했다. 팀장 김복실 씨 외에 김상규 씨, 정윤미 씨, 강숙영 씨, 강유미 씨, 강한복 씨 이렇게 6명은 유독 강씨 성이 많아서 '최강팀' 이란 별명으로도 불린다. 휴일에 조사를 나갈 때마다 4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다닌 멤버 한 명은 주민들의 눈총에, 아이 고생에 이중고를 겪기도 했다고… 그때도 보람이 컸다.

동구청에서 김복실씨는 일에 미친 '워커홀릭(일 중독자)'으로 소문난 일꾼이다. 무슨 일이든 한 번 시작하면 집요하게 추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공부하고 연구하는 열성파다. 결혼도 늦은 나이인 38세에 해서 현재 초등학교 5학년 딸을 하나 두었다. 같은 공무원인 남편과 새벽 2~3시까지 머리를 맞대고 인천과 동구의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한다. 그녀와 같은 공무원이라면 국민의 입장에선 정말 든든한 공복(公僕)인 셈이다.

1990년대 초,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싶었던 무렵, 승립1동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처음 맡게 되면서 일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제안했는데 미침 동네 유지의 지원을 받았고 호응도 좋았어요." 즉,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매일 요구르트를 배달해주면서 집집의 시정을 매일 동사무소에 전달해주는 것인데 굿아이디어였다. 꽤 성과가 있어 동구청의 시책사업으로 몇 년간 진행될 정도였다. 2007년에는,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문화관광형 재래시장 프로젝트'에서 동구의 송현시장이 선정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대개의 재래시장이 온갖 냄새가 진동하고 환경적으로 지저분한 문제가 있어, 일본의 시장설비를 벤치마킹하고 하수 및 지하시설 정비까지 고려한 덕에 송현시장은 냄새가 안나는 재래시장이 되었다.

보람도 많지만, 아카사키촌을 비롯해서 빈곤지역의 주민들을 접해보면, 과연 기난을 탈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적일 때가 많다고 한다. 자기 밥그릇인양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회의감은 더욱 커진다. 더 큰 문제는 법 적용에 자신의 조건을 급조해서 기초수급자 지정을 받는 이들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모 보험설계사는 수급자임에도 노래방 사업에 아파트 여려 채를 보유한 고객을 만나기도 했단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김복실씨, 재래식 회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한다. 주위에선 별 대접도 못 받으면서 왜 그리 일을 열심히 하느냐고 편지를 주는 이들도 있지만, 마치 갓 출발한 새내기처럼 그녀의 순수한 초심과 열정은 고맙기 그지없다.

"해피플래너와 함께 아카사키촌 사업을 잘 해보고 싶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행운이죠.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이름 그대로 복스런 미소를 환하게 지어보이는 김복실씨와 해피플래너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행복한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해본다.

글 · 권영선 | (사회)희망배달본부 본부장 * 경인방송 희망배달본부 032-830-1004 * 인천 동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32-770-6451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자동차 광고가 피가
생각이 난다. 이것은 개원기념
일에 모범직원으로 선정되어
태국 연수의 특전을 얻은 우리
18명에게 딱 맞는 문구이다

태국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스트레스는 한방! 일상으로의 화려한 복귀

글 · 오선영 과장 | 보험심사팀



입사 15년째인 나는 하나를 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하나를 구상하며 새로운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일중독에 빠져 살았다. 흡족한 결과를 얻었을 때는 나름 자부심도 느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실망감으로 마음을 다스리느라 무더히 애썼던 기억이 떠오른다. 2% 부족한 것 같은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 같다.

3월 5일의 태국 연수는 그동안의 누적된 피로와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나 폭넓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가 되었다. 시간의 쫓김과 성과를 내기 위한 스스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내 직장에서 나에게 배려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요즘처럼 행복할 때가 없다. 자부심과 긍지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해외연수의 기회는 동기부여를 하고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좋은 제도가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란다. 또한 나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주위의 모든 분들 특히 심사팀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이 따뜻하고 현명한 리더로 거듭나고 싶다.

태국 연수를 가게 된 18명은 출국 당일 오후 2시 여행사에서 제공한 리무진버스로 가이드와 같이 병원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했다.

나는 3월 5일 일정동안 팀의 리더로 일정 조율 및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돋는 역할을 맡았고 총무로 기획예산팀의 이건희 대리가 수고했다. 우리 일행을 소개하면 교육수련부 김유희, 김경태, 김도근, 산업의학과 이관희, 시설팀 유호완, 전산운영팀 남상안, 학의학과 조용귀, 영상의학과 한선화, 병동 간호팀 정은정, 최효선, 하현정, 외래간호팀 김지영, 김성희, 특수간호팀 김기원, 박주경, 조옥민 그리고 나와 총무 이렇게 18명이다. 개인사정으로 참여를 못한 원무팀의 김나숙을 생각하면 좋은 추억을 같이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6월 30일 오후 6시 40분 KE0653편으로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현지시간으로는 오후 10시 10분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공항은 관광객们 맞이하러 나온 현지가이드 등 몇몇 사람으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방콕 시내에는 중학생처럼 보이는 교복 입은 학생들이 투표하러라는 구호를 외치며 지나가고 있다. 7월 3일 총리선거 유세로 선거포스터를 포함해 선거유세버스나 봉고도 보인다. 타신 전 총리의 여동생 임력이 태국 최초의 여성총리가 될지, 지난 2년 동안 국민의 지지를 받아온 아피시트 전총리가 연임할지 궁금했는데 귀국 당일 여성총리의 당선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왕의 나라, 불교의 나라를 실감하게 하는 거리의 풍경은 태국국기와 왕실을 상징하는 개인기가 같이 걸려있고 왕의 절은 시절의 사진과 왕비의 사진이 눈에 띈다. 우리의 첫 일정은 현지 가이드 의다소 어설픈 한국어로 하는 설명을 들으며 에메랄드사원과 왕궁으로 갔다. 에메랄드사원은 왕궁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있는 왕실전용 사원이며 국민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리고 경배하는 태국 최

고의 사찰로 유명하다. 이곳에서 나도 부처님께 3례를 올렸다.

왕궁 근처의 수상가옥을 보고 점심식사 후 1시간 버스로 이동하여 방문한 곳이 안희 인터내셔널 병원이다. 한국인 직원인 정무근 과장이 우리를 안내했다. 태국에서 가장 큰 성형종합병원으로 84년 개원하여 현재 500병상, 36개 진료과가 개설, 1일 내원객 2,000명이며 성형전환수술로 유명하다. 1층 로비에 쿨센터가 중앙에 위치하여 전화예약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밝고 자유로움이 넘치는 분위기로 병원이란 느낌보단 다른 서비스업 종처럼 느껴져 이 병원이 태국의 의료서비스를 관광화 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구체적인 의료기술이나 전문적인 것에 대한 검증은 할 수 없으

나 세계적으로 성형수술을 많이 하고 유명하다는 태국 안희 병원에서의 견학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우리병원과 의료 환경은 다르지만 병원 전체에서 느낄 수 있었던 자유로움이 넘치는 밝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 미소가 살아있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형식적인 친절서비스 일정기간의 평가받기 위한 태도를 탈피하고 진정으로 우리를 찾는 고객을 가족같이 대하고, 진심에서 우러난 친절과 미소로 응대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느꼈다. 우선 가까이에 있는 직장 동료들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분위기가 확산되면 긍정적이고 밝은 병원 전체의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고객들 구전으로 “안하네병원은 내 주치의가 있고 내 가족같은 병원.”이라고 회자되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하여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파타야로 이동하여 2박을 했다. 이곳에서는 동료들과 친목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함께 비단기를 가늘고 물놀이도 하고 해양스포츠를 즐겼다. 늦은 오후에는 색다른 볼거리, 다양한 길거리 음식, 티파니쇼, 코브라쇼, 오토바이를 개조한 택시 일명 뚝뚝이를 타고 호텔로 이동했고 열대과일인 망고와 망고스틴도 실컷 먹었다. 그동안의 누적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며 귀국 후 일상으로의 화려한 복귀를 위해 개개인 나름대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의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 날 저녁식사는 바이옥스카이 호텔 인터내셔널 부페였다. 총 83층 호텔의 75층~78층에서 세계 각국의 요리와 함께 방콕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곳은 18층까지 주차장이다. 83층 전망대에서 본 방콕 시내 야경은 화려한 불빛으로 아름다웠다. 아쉬움을 남기고 7월 3일 마지막 비행기로 우린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다.

연수기간동안 동료들과 많은 대화로 친밀감이 높아졌고 축복받은 여행, 모두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 무사귀환을 일행을 대표해서 보고하며 각자 맡은 분야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생활하고 긍정적인 조직문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켄블레이처드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가 생각난다. 개인적으로 현재 캠페인 중인 ‘미인대칭비비불’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어 우리 조직문화의 원동력이 되길 기원한다.



▲ 사진 뒷줄 우측 끝에서 두 번째가 필자 오선영과장

인하길사랑 정기 트레킹을 다녀와서... 아흔아홉 굽이 대관령 옛길을 걷다

글 · 박근택 과장 | 시설팀

늙으신 어머님을 고향에 두고
외로이 서울로 가는 이 마음
돌아보니 북촌은 아득도 한데
흰 구름만 저문산을 날아 내리네.

이 시는 우리가 대관령 옛길을 이야기 할 때 자주 인용하게 되는 신시임당의 사친시(思親詩)로, 신시임당이 어린 율곡의 순을 잡고 아흔아홉 굽이 대관령을 넘어 한양으로 가던 길에 고향 마을을 내려다보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지요. 2010년 11월, 문화재청이 명승 제74호로 지정한 대관령 옛길은 이처럼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아래 주요 교통로의 역할뿐 아니라 이 길을 이용한 수많은 민중들의 애환이 서린 곳이기도 하고, 또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강릉단오제가 시작되는 길이며, 백두대간의 큰 고개인 대관령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주변 계곡과 옛길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06:00 오전 6시를 조금 넘긴 이른 시각. 병원을 출발한 버스는 비 내리는 영동고속도로를 조심조심 달려 나간다. 오늘 우리 인하길사랑(인하대병원 트레킹 동호회)에서 제8회 정기 트레킹을 위해 찾을 곳은 우리나라의 걷기 좋은 길들 중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대관령 옛길이다. 하지만 호사다미랄까? 야속하게도 며칠을 계속되는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아마 오늘은 인하길사랑의 첫 우중 트레킹이 될 듯하다.

09:50 평소보다 일찍 서둘른 덕에 목적지인 구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에 늦지 않게 도착. 설레는 마음으로 옛길 트레킹을 시작한다.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코스는 이 곳 대관령휴게소를 출발하여 양떼목장과 국사성황당, 반정, 주막터를 거쳐 대관령박물관까지 총 10km로 대략 4시간 정도가 예상된다. 대관령휴게소 동쪽의 대관령 옛길 들머리. 이곳은 대관령 옛길(비우길 2구간과 선자령 순환등산로가 시작되는 곳으로, 우리는 진또배기(강릉 지역의 솟대 이름)가 가르치는 비우길 방향을 따른다.

숲속으로 들어서며 맞이하게 되는 산길은 이내 작은 돌다리와 완만한 경사의 계단길로 이어지고... 우비와 우산으로 비를 피해야 하는 불편스런 빗속 트레킹이지만, 길을 걷는 인하길사랑 회원님들의 표정은 밝기만 하다.

10:20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쯤, 조용한 선율의 음악 소리와 함께 멋스러운 풍광을 자랑하는 대관령 양떼목장이 모습을 나타냈다. Windows 비팅화면에서나 접한 듯한 이국적인 느낌의 목장 풍광을 즐기며 잠시 다리쉼을 하고 있노라니 악해자던 빗줄기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갑자기 뚝! 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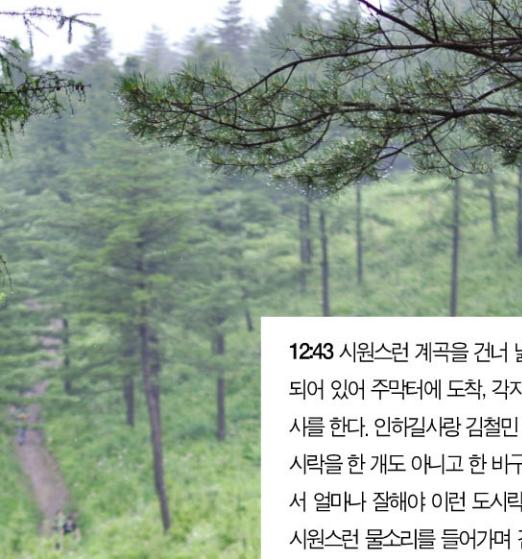
10:47 바우길의 1구간과 2구간이 나뉘는 삼거리에서 바우길 2구간 이정표 방향을 따라 국사성황당에 도착했다. 이곳은 영동 지방의 가뭄, 홍수, 폭풍, 풍작 등을 보살펴 주는 신들을 모시는 곳으로 강릉 단오제가 시작되는 곳으로 유명하며, 우리가 도착했을 때에도 이름 모를 굿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10:53 통신팀이 서 있는 사거리. 이곳은 대관령에서 선자령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길과 대관령 옛길이十자로 만나는 곳으로 이후 옛길은 강릉쪽으로 굽이굽이 S자 내리막길의 연속이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에 의해 만들어진 대관령 옛길, U자로 깊이 파인 폭 너른 길을 걷노라면 마치 봅슬레이 주행로 속을 걸어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살짝 답답하다 싶을 정도의 완만한 경사도의 굽잇길은 내리막에 대한 무를 부담을 덜기에 충분하다.

11:28 대관령 옛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강릉에서 횡계까지의 절반이라는 반정에 도착. 흐린 날씨 때문에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강릉쪽 조망은 영신통치 못했지만, 대관령 옛길 표지석 앞에서 삼삼오오 가념사진을 남기고서 다시 길을 이어간다.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걷는 대관령 옛길. 함께 걷는 사람들이 좋아 지루할 틈도 없지만, 길가에 피어 있는 우리 땅 우리 야생화들과의 만남이 있어 더욱 신나고 즐거울 따름이다.





12:43 시원스런 계곡을 건너 넓은 평상과 휴게의자들이 설치되어 있어 주막터에 도착, 각자 준비해 온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한다. 인하길사랑 김철민 부총무님은 상상 못 할 맛난 도시락을 한 개도 아니고 한 바구니나 싸오셨다. 세상에나, 집에서 얼마나 잘해야 이런 도시락을 얻어먹을 수 있는 건지...^^ 시원스런 물소리를 들어가며 걷는 원만한 경사의 계곡길. 혹, 너무 일찍 끝나면 어찌나 할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길이다.

13:40 어흘리 마을, 비행접시 모양의 우주선 회장실을 지나 대관령 휴양림 갈림길에서 대관령박물관 쪽으로 방향을 고쳐 잡으면 대관령 옛길은 작은 고개 하나만을 넘겨 놓게 된다.



1. 대관령 양떼목장
2. 천년 넘게 우리 조상들이 걸었을 이 길을 오늘은 인하길사랑 회원들이 걷고 있다.
3. 국사성황당
4. 주막터 쉼터
5. 대관령 옛길 트레킹 인하길사랑 단체사진



3

14:00 강릉부사로 부임하던 원님들이 지방관 빌령을 한탄하며 울며 넘었다가, 임기를 마치고 강릉을 떠날 때 그동안 정이 들었던 백성과 인심을 못 잊어 다시 울며 돌아갔다는 원울이재를 넘어 대관령 옛길의 종착점인 대관령박물관에 도착.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념으로 무료입장 행사를 하고 있는 박물관을 둘러보는 것으로 옛길 트레킹을 마무리 짓는다.

혹여, 아직 올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하셨다면, 동해안과 더불어 이곳 '대관령 옛길'을 한번쯤 걸어보는 것도 특별한 휴가가 되지 않을까 싶다.

[트레킹 정보]

□ **트레킹 코스 및 시간** - 구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상행휴게소(50분)-국사성황당(35분)-빈정내(60분)-주막터(60분)-대관령박물관(총 10km, 약 4시간)* 대관령휴게소에서 시작하는 옛길 트레킹은 비우길 2구간 이정표를 따르면 어렵지 않게 대관령박물관에 도착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트레킹 정보는 (<http://www.baugil.org>) 참조.

□ **교통편** - 서울 영동 고속도로 황계IC를 빠져나와 우회전 900m 진행-영동고속도로 아래 삼거리에서 좌회전-5km 진행-구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상행 휴게소.

* 트레킹을 마치고 대관령 박물관에서 대관령 휴게소로 돌아올 때는 택시를 이용(약 2만원): 황계 개인택시 033-335-6263, 5960/ 횔택시 033-335-5596

□ **불거리**

★**대관령 양떼목장** (<http://www.yangtte.co.kr>) : 트레킹이 시작되는 대관령 휴게소 북쪽에 위치한 대관령 양떼목장은 드넓은 초원과 목장 산책로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한다.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색다른 느낌은 마치 알프스를 연상케 할 정도로 아름답고, 앙들에게 건초주기 체험을 포함한 1시간 정도의 목장 산책은 진진한 감동과 추억을 남기기에 충분하다.

★**국사성황당**: 대관령 옛길의 사실상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국사성황당은 영동지방의 가뭄, 홍수, 폭풍, 풍작 등을 보살피 주는 신들을 모신 곳으로 유네스코가 선정한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강릉 단오제(중요무형문화재 제 13호)가 시작되고 끝나는 곳이다.

★**대관령 박물관**(Tel 033-640-4482-3) : 트레킹의 종착점인 어흘리에 위치한 대관령박물관은 1993년 5월 흥귀숙 관장이 사비를 들여 설립한 사립박물관으로, 2003년에 소장품과 박물관 건물을 강릉시에 모두 기증함으로써 문화재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였다. 박물관 전시실은 네 방위를 수호하는 사신의 이름을 따, 청룡방·백호방·주작방·현무방으로 구분되어 있다.

Q & A

모든 갑상선제는 태반 통과 하지 않아, 임신 중 흔하게 사용



Q : 하이페테트 라는 주사는 상처 입었을 때마다 접종을 맞아야 하나요? 그리고 TD는 상처 입었을 때에 접종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처 없을 때 맞아도 되는지요?

A : Hyper-Tet는 인간 파상풍 면역 글로불린으로 최근 5년 또는 10년 이내에 파상풍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으면서(최근 파상풍 예방접종을 받았다면 투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파상풍의 위험이 높은 상처(쉽게 말하면 사고 등의 심한 상처)일 경우에 파상풍 예방을 위해 1회 250단위(1vial)를 투여하며, 파상풍 환자의 경우에는 3000~6000 단위까지도 투여하게 됩니다.

Td는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파상풍 상처 여부에 관계없이 어릴 때 파상풍 예방접종을 정상적으로 모두 받았다면, 10년마다 한 번씩, 어릴 때 파상풍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3회 접종받은 후 10년마다 추가 접종을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처 발생시 파상풍 예방 목적으로는 최근 접종으로부터 5~10년 경과시 Td 0.5ml 접종, 10년 이상 경과시 Td 0.5ml + 파상풍 면역 글로불린 250단위를 접종합니다.

Q : 갑상선 항진증으로 메티마졸을 먹고 있다가 올 2월에 호전되어 약을 끊은 상태에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최근 검사결과 약을 먹어야 한다는데, 임신중이어서 안티로이드로 약을 변경했습니다. 안티로이드를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는 부작용이 있는데 약을 먹은지 이를만에 다시 두드러기가 생겼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한, 출산후 모유수유도 할 수 있는지요?

A : 모든 항갑상선제는 태반을 잘 통과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유로 나오는 양도 무시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임신 및 수유 기간 중에 항갑상선제(안티로이드, 메티마졸)를 복용하여도 태아나 신생아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항갑상선제 중에서도 안티로이드(PTU)는 다른 항갑상선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태반을 통과하는 양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임신이나 수유중에 안티로이드가 제일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임신기간 중에 안티로이드를 사용하다가 부작용이 동반되면 그 정도에 따라 항갑상선제 대신 갑상선절제술로 방법을 바꿀 수도 있고, 또는 다른 항갑상선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이 심하지 않다면 안티로이드를 사용하면서 두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욱 임신 기간 중에는 항갑상선제의 용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 합니다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 3327 | 야간 032) 890-3315



인천연세병원 | 주민홍 원장

지난 5월 12일 환자 중심의 의료문화를 실천하겠다는 주민홍 원장은 인천시 서구 연희동에 인천연세병원을 개원하였다. 관절, 척추, 뇌수술 전문병원인 인천연세병원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등의 진료와 종합건강검진센터가 개설되어 있으며 응급실도 운영되고 있다.

주 원장은 경제적인 수술 위주로만 흐르는 요즘의 의료행위를 아쉽다고 전한다. 1, 2차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 원장,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진료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천연세병원이 운영 면에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응급실을 24시간 가동하는 이유는 비로 주 원장의 이러한 생각 때문이다.

인천연세병원은 지상 5층, 지하 2층의 건물에 200병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인천연세병원은 최대 장점은 의료장비이다. 최신 MRI, CT와 유방촬영기, 골밀도 측정기, 적외선체열촬영검사의 도입은 물론 무중력감압치료기, 체외충격파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5층에 위치한 운동치료실에는 컴퓨터화된 재활운동 기구인 '메덱스'는 허리 주위 근육의 유연성과 근육강도를 강화시켜 줌은 물론 여러 관절을 재활운동 시켜주는 기구 등의 선진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다.

항상 초심의 마음, 만족할 수 있는 병원으로

주 원장은 대부분 관절질환의 원인이 과사용이기 보다는 근력약화가 원인인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인천연세병원에서는 고통의 치료는 물론 수술 전후 추가 손상을 막기 위한 운동치료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한다.

주 원장은 개원 첫날을 생각하면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던 막막했던 기억만 떠오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병원 문을 들어서는 환자마다 최고의 진료를 하려 했던 설렘과 긴장이 생각난다. 이 초심을 잊지 않고 환자의 입장에서 항상 만족을 주는 인천연세병원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발전하고 싶은 소망 또한 주 원장의 바람이다.

병원 근처 식당에서 자장면 곱빼기(?)를 줄때 보람을 느낀다는 주 원장의 웃음이 그저 가볍지만은 않다. 어느새 이웃과 한데 어우러지는 따뜻한 정이 담겨있다.

인천연세병원은 지역사회의료의 큰 축을 담당하면서 분명 의료사각지대를 책임지려 한다. 그래서 인천 서구의 중심병원으로 우뚝 서는 그 날을 꿈꾸며 최선의 노력과 최상의 서비스로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연다. ● 인천시 서구 연희동 ☎ 032 - 561-3457



(주)경인기계 구제병 대표, 사회복지기금 1천만 원 기부

건강문화 CEO 과정 1기 원우인 (주)경인기계 구제병 대표는 불우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금으로 1천만 원을 본원 사회복지기금으로 기부하였다. 향후 매년 1천만 원씩, 기부 약정을 한 구제병 대표는 탈북 청소년 장학금 지원, 독거노인 급식사업 지원 등 평소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을 아끼지 않고 있다.

**(주)한국상운 이점만 대표, 병원발전기금 1천만 원 기부**

건강문화 CEO 과정 2기 원우인 (주)한국상운 이점만 대표는 2009년 11월, 1천만 원을 병원발전기금으로 기부한 데 이어, 올해 6월에 다시 1천 만원을 쾌척하였다. 이점만 대표는 해당 기금을 병원 발전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기부자의 뜻에 따라 병원 발전을 위해 뜻 깊게 사용할 예정이다.

**인하대병원, 해외환자 유치 공로 - 보건복지부장관 공로패 수상 ●**

2011년 5월 26일, 인하대병원은 2010년도 해외환자 유치 실적 우수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또한 박승림 의료원장은 글로벌의료 최고 자문관으로 위촉되며,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큰 힘을 얻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2010년도 해외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인하대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과 의원급 총 13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각 기관의 노고에 감사의 표하고자 진행되었다. 인하대병원은 지난 2008년, 국내 최초로 미국 의료관광단을 유치하며, 해외환자 유치사업의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하고, 해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장관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2009년 9월 개소한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는 본원을 방문한 해외환자들에게 보다 더 체계적인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20여 년간 미국에서 진료를 해온 박홍재 소장을 국제진료센터로 영입하고, 러시아, 중국 등 국가별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운영중이다.

**인하대병원, 인천과 함께 '의료 MICE 도시' 의 주역으로 우뚝 ●●**

2011년 5월 2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 의료 MICE 선포식'이 열렸다. 'Better Medicine By The Meeting - 회의를 통해 더 나은 의학을 인천에서'라는 슬로건 하에 진행된 이번 선포식에는,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등 150여 명의 의료관광관련 기관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이날 박승림 의료원장은 "인하대병원은 지난 20일, 인천광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Medical과 MICE의 결합을 바탕으로 한발 빠른 준비를 해왔다."라며 "인천시는 물론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료관광산업의 중심에 서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 박홍재 소장은 '인하대병원의 의료관광 전략'에 대한 발표로 의료관광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인하대병원, 인천 유일의 '한국 유전성 유방암 유전상담 거점 병원' 선정 ●●●**

인하대병원이 인천지역 유일의 '한국 유전성 유방암 유전상담 거점 병원'으로 선정되었다. 유방암의 강력한 위험인자인 유방암 유전자는 유방암의 발생요인의 주요 요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유전성 유방암은 모든 유방암의 5~10%를 차지한다. 또한 한국인의 유방암은 서양에 비해 빈도가 낮고, 젊은 여성의 유방암이 많아 서양과는 다른 패턴을 보여 서양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한국인의 유방암의 특징을 파악하고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연구를 위해 인하대병원이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것이다. [유전상담이 필요한 고위험군 : 유방암과 난소암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 35세 이전에 유방암에 걸린 사람, 양측 모두에 유방암이 걸린 사람, 남성 유방암 환자, 유방암과 난소암을 모두 진단 받은 사람, 가족 중에 유방암 돌연변이 인자가 있는 사람] ●〈문의〉 여성암센터 (032-890-2560 / 032-890-2561)

국내 성체줄기세포 연구 주도 인하대병원, 선도연구팀 선정 5년간 연구비 50억 지원 ●

인하대병원 성체줄기세포연구사업단(단장 송순욱 교수, 이하 줄기세포 사업단)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줄기세포 선도연구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인하대병원 줄기세포 사업단은 이번 선도연구팀 선정에 따라 2016년까지 5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줄기세포연구 종합추진 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선도연구팀 육성 사업은 줄기세포분야 글로벌 Top 5 진입을 위한 전략 추진 과제로 3단계 평가를 거쳐 8년간 최대 220억 원까지 지원되는 과제다. 인하대병원은 줄기세포 사업단은 서울약대, 성균관대학, 차의과대학의 교수진과 협력해 '차세대 성체줄기세포 분리, 배양기술 최적화와 면역 및 생체조절 연구를 통한 성체줄기세포치료제의 핵심기술개발'을 주제로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인하대병원 성의학센터, 특성화 연구센터 선정으로 5년간 연구비 65억 수주 ●●

인하대병원 성의학센터(센터장, 비뇨기과 서준규 교수)가 2011년도 보건복지부 병원 특성화 연구센터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인하대병원 성의학센터는 2016년까지 5년간 6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돼 성의학 분야의 체계적 연구를 위한 기반을 확립했다.

이번 특성화연구센터 지정에 따라 인하대병원 성의학센터는 서울약대, KAIST 교수진 및 바이오 중견회사인 테리젠이텍스와 협력해 성기능장애의 병인에 근거한 맞춤형 국소치료제 개발과 효율적인 성기능장애 유효성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류정선 교수팀, '폐암 맞춤치료'로 중점연구 부문에 선정돼 ●●●

인하대병원 폐암센터 류정선 교수팀이 2011년 6월 23일 보건산업진흥원 R&D 사업, 중점연구부문에 선정되어 앞으로 3년간 9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사망률이 높고 의료비 부담이 큰 주요질환에 대한 진단, 치료기술을 개발하여 이들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모한 중점연구부문에 류 교수 팀이 'DNA 손상 반응 경로 유전자를 이용한 폐암 맞춤치료 모델 개발'이라는 연구 과제로 응모하여 선정되었다.



인하대병원 - 지멘스, 핵의학 분야 발전 MOU ●●●●

인하대병원과 지멘스가 핵의학 분야 발전을 도모한다. 2011년 7월5일, 인하대병원은 지멘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인하대병원과 지멘스는 임상연구, 학술 및 교육, 기술지원 등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양 기관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호 원-원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인하대병원은 지난 3월 경인지역 최초로 지멘스 헬스케어의 SPECT - CT를 도입하였다.



인하대병원,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병역명문가 지정병원' 협약식 성료 ●

2011년 7월 12일, 인하대병원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을 위해 '병역명문가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갖게 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병역명문가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로 실시되었으며, 인하대병원은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종합간강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 모두 현역으로 복무한 가문을 뜻한다.



인하대병원, 인천관광공사와 업무협약체결로 해외의료관광 유치 협력 약속 ●●

2011년 5월 20일, 인하대병원과 인천관광공사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공동 협력 마케팅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이 의료관광산업의 선두 지역으로 도약하고, 송도 컨벤시아의 활성화와 의료관광객의 적극적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을 통해 인천 MICE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자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해외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을 기본으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 시 응급 의료지원, 관광 편의 제공 등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지역사회 암 극복 프로젝트, 암 홍보대사 위촉 및 발족식 개최 ●●●

2011년 6월 2일, 인하대병원은 지역사회 암 극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암 홍보대사 위촉 및 발족식'을 실시했다. 본 행사는 투병중인 암 환자에게 올바른 암 정보제공 및 암 극복과정을 공유하여 삶의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자 진행되었으며, 홍보위원으로는 본원에서 암 진단받고 5년 이상 투병중인 분, 암 극복 이후 암 예방 및 홍보활동 등에 자발적으로 봉사하려는 분으로 총 47명이 선정되었다. 위촉된 홍보대사들은 향후 암 투병중인 환자 및 보호자들을 방문하여 암 극복 의지와 삶의희망을 부여하고, 일반인 대상 암 예방 효과 및 올바른 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하대병원, 지역기관과 함께 -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수술지원사업' 협약 ●●●●

2011년 6월 16일, 인하대병원은 (주)경인방송과 (사)희망배달본부, 그리고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수술지원사업'에 적극 함께하고자 힘을 모았다. 이에 따라, (주)경인방송은 본 사업에 대해 방송프로그램을 진행, (사)희망배달본부는 의료비 부담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대상을 선정한다. 또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다양한 후원을 바탕으로 무료 수술비를 지원하며, 인하대병원은 인천의 중심병원으로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ARS(060-701-0900)를 개설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화 1통화를 통해 2천원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



제3회 유타 - 인하 DDS 및 신 의료기술개발 공동연구소 심포지엄 및

제5회 인하 - 나노 클리닉 심포지엄 개최 ●●●●●

2011년 6월 10일, 인하대병원은 인하대병원 임상연구부와 (재)유타-인하 DDS 및 신 의료기술개발 공동연구소, 그리고 국가지정 소화기질환 유효성평가 서비스센터(NCCEED)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후원하는 '제3회 유타 - 인하 DDS 및 신 의료기술개발 공동연구소 심포지엄'과 '제5회 인하 - 나노 클리닉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21세기를 책임질 나노기술과 생명과학기술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약물전달시스템과 나노기술 분야의 국내외 뛰어난 연구들이 초빙되어 최근 연구 성과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약물전달시스템의 임상응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진행되었다.

사이버나이프 건강공개강좌 개최 - 암! 이겨낼 수 있다 ●

2011년 6월 28일(화), 인하대병원은 3층 대강당에서 '암 치료의 새로운 희망, 사이버나이프'라는 주제로 폐암, 간암, 전립선암에 대하여 조기발견과 치료법에 대한 건강공개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에서는 별병 10대 암 중 가장 낮은 생존율을 보이는 폐암, 조용한 건강 침입자 간암, 그리고 중년남성의 행복을 위협하는 전립선 암에 대한 올바른 치료와 관리법을 소개했다. 인하대병원 사이버나이프센터장 김우철 교수는 "폐암, 간암, 전립선암은 사이버나이프를 통한 치료의 경우, 미취나 절개가 필요 없어 비교적 간편한 수술법으로서의 강점이 있다."고 말하며 "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뻬른 쾌유와 치료 방안 모색을 돋고자 마련된 이번 강좌가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소아청소년정신과 공개강좌 - '말 안듣는 아이, 현명한 소통방법 제시' ●●

2011년 6월 1일, 인하대병원은 중구정신보건센터와 함께 '말 안 듣는 우리아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를 주제로 공개강좌를 실시했다. 말 안 듣는 아이를 둔 학부모와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한 이번 강좌는 명쾌한 강의로 큰 호응을 얻었다. 소아청소년정신과 이정섭 교수님은 "평소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문제가 심한 아이의 경우 전문의와의 상담도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VIP 라운지 개소 ●●●

2011년 7월 6일, 인하대병원은 VIP 라운지 개소식을 실시하며, 차원이 다른 맞춤 의료서비스의 시작을 알렸다. 인천의 중심병원으로서,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인하대병원은, VIP 라운지를 비탕으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리운지는 건강문화CEO과정 원우분들의 병원 발전기금으로 만들어진 공간으로서 인식하고, 쾌적한 상태에서 진료 안내가 이루어지며, 인하대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1년도 진료의뢰 책임자 간담회 개최 ●●●●

2011년 7월 15일, 인하대병원 진료협력실에서는 협력병원 진료의뢰 책임자 간 유대관계강화를 위하여 2011년도 진료의뢰 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응급환자 및 장기환자 전원의 원활한 절차운영을 위한 협의와 응급HOT-LINE에 대한 소개자리를 가졌다. 인천서울병원 등 7개병원 책임자들이 모인 이번 간담회를 비탕으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신속한 환자의뢰시스템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연수의사 수료식 실시 ●●●●●

2011년 7월 8일, 인하대병원에서는 베트남 'Tran Hung Dao Hospital' 소속 의사 'THAO HIEN THI TROUTNG'의 의료연수 수료식을 가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의료인력 국내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약 3달간 인하대병원 혈액중증내과와 방사선종양



학과에서 지도를 받았다. 이번 연수는 인하대병원의 선진 의료기술 전수를 통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 강화 및 본원의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인하대병원의 미래를 위한 기대주 - 2011년 승격자 교육 실시 ●

2011년 5월 18일 ~ 19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 호텔에서 '2011년 승격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리더십과 Followership, 주도적 자기경영을 목표로 직급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조직내의 잠재적인 갈등을 예측, 해결하고, 인간적으로 소통하며, 개개인의 역량을 향상하여 업무 및 조직관리자로서 성장하는 기초를 다지는 과정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팀워크 개발을 위한 합창과 율동, 그리고 하모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동료들의 소중함과 자기자신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다.



휴일도 잊은 의료봉사 - '인조이 아시아 이주민 체육대회' 의료지원 ●●

2011년 6월 12일,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대운동장에서 개최된 '인조이 아시아(In-Joy Asia) 이주민 체육대회' 행사에서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위해 행사 의료지원 및 건강검진과 의료장비 체험을 실시했다. 인하대병원 건강체험관에서는 혈압·혈당검사, 체지방분석, 신체나이측정, 경동맥초음파검사 및 혈관질환검사 등 전문의료서비스를 실시하여 행사에 참가한 300여명의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박승림 의료원장은 "힘든 타국생활에 친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문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천이 국제도시로 발전하는데 있어 인하대병원이 앞장서겠다"라고 하였다.



원무팀 석현숙 대리, 필리핀 대사로부터 감사패 수상 ●●●

2011년 5월 29일, 제 113회 필리핀 독립기념일 및 16회 노동절 기념대회를 맞이하여 인하대 병원 원무팀 석현숙 대리가 필리핀 대사 (MR. 루이스 크루스)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본 수상은 지난 4월 2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갑작스런 가슴통증으로 공항의료센터를 거쳐 본원으로 오게 된 Mr. Mario 씨(필리핀 인)에게 통역서비스로 언어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 생활용품, 기타 가족들과의 연락 등 헌신적인 서비스로 진료를 지원해준 원무팀 석현숙 대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진행되었다.



파랑새 소식

●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문의 여성암센터 ☎ 032-890-2560
▶홈페이지 www.inha.com >여성암센터 ▶카페 [cafe.daum.net / inhabluebird](http://cafe.daum.net/inhabluebird)

여성암센터 - '여성암 시민 건강강좌' 개최



2011년 7월 14일, 인하대병원 여성암센터에서 '유전성 유방암과 난소암의 치료와 예방'을 주제로 건강공개 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여

성암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인하대병원 여성암센터 조영업 소장은 "최근 인하대병원이 인천 유일의 (한국 유전성 유방암 유전상담 거점병원)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유방암과 난소암을 비롯한 여성암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8월은 휴가 기간입니다. 파랑새 여러분 뜨거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세요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2011.05.19



출연: 윤창호 교수/신경과
프로그램: OBS-건강버라이어티
‘올리브’
내용: 코골이 예방법

2011.06.15



출연: 김철우 교수
/알레르기내과
프로그램: 인천방송-6시 뉴스
내용: 장미철 곰팡이와 알레르기

2011.06.24



출연: 박홍제 소장/국제진료센터
프로그램: 인천방송-6시 뉴스
내용: 해외환자 유치 전략

2011.06.24 / 07.15



출연: 이지은 교수
/소아청소년과
프로그램: MBC-꾸리기
식사교실
내용: 소아의 영양과 성장

2011.06.30



출연: 김명욱 교수/재활의학과
프로그램: SBS-세상에 이런일이
내용: 경직성 하지마비

2011.07.01



출연: 허윤석 교수/외과
프로그램: EBS-명의의 200인을
만나다
내용: 비만치료의 새로운 혁명

2011.07.04



출연: 권계숙 교수/소희기내과
프로그램: SBS-100세
건강 스파셜
내용: 전변의 위협성

2011.07.05



출연: 이정섭 교수/정신과
프로그램: 국회방송-새벽률산책
내용: 청소년 인터넷 중독

2011.07.09



출연: 이연지 교수/비만센터
프로그램: MBC-경제매거진 M
내용: 설탕중독

2011.07.08



출연: 이명훈 전임의/정신과
프로그램: 인천방송-6시 뉴스
내용: 장미철 우울증 예방법

2011.07.11



출연: 허윤석 교수, 이연지 교수
/비만센터
프로그램: EBS 다큐프라임
내용: 음식의 진화

2011.07.11



출연: 조규정 교수/정형외과
프로그램: KBS 2TV- 리빙소
당신의 6시
내용: 척추수술관

2011.07.18



출연: 아진수 교수/감염내과
프로그램: KBS 2TV-위기탈출
No.1
내용: 비브리오균의 위험성

2011.07.19



출연: 임종한 교수/산업의학과
프로그램: SBS- 8시 뉴스
내용: 음식첨가물 오남용의 위험

인사동정

임용

신경과	진료교수	배은기
외과	일반의	이용식
영상의학과	일반의	임수진

수습직원임용

특수간호팀	박현우, 조아라
병동간호팀	신명화, 구상희, 박지은, 배선희, 이수희, 유진녕

전근

소속	성명	발령사항
외래간호팀	김현정, 윤혜진	병동간호팀

병동간호팀 이지은, 박지영

특수간호팀 곽미영

인사총무팀 이희수

외래간호팀

병동간호팀

원무팀

이달의 친절직원

6월 병동간호팀 (동15병동)	유진희 간호사
7월 병동간호팀 (동17병동)	김덕순 간호사



이번에는 치과에서 활용할 수 영어 대화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urse: Good afternoon! What is troubling you?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나요?

Patient: My wisdom tooth is aching!

사랑니가 많이 아파요.

Nurse: May you please take your sit. You will have a consultation with Dr. Jang in a minute.

잠깐 자리에 앉아계세요. 장선생님께서 곧 진료를 봐주실 겁니다.

Patient: But I'm in so much pain right now, is it possible for me to extract my wisdom tooth right away?

제가 지금 통증이 많이 있는데, 바로 사랑니를 빨치할 수 있을까요?

Nurse: I'm sorry sir, but only the consultation can be done today. You need to make another appointment.

죄송합니다. 오늘은 진료만 가능하시고, 빨치는 다른 날 예약을 잡으셔야 합니다.

Patient: OK.

네 알겠습니다.

★ Global Inha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병원에서 쓰이는 영어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병원 영어 회화가 있으시면, 원보의 엽서 또는 inhapr@inha.com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인하대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봉사해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 자격

- ① 만 60세 미만으로 주 1회(3시간) 최소한 6개월 이상 활동 가능하신 분
- ② 각종 교육과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
- ③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분

2. 봉사활동시간(평일)

- 오전 : 9시 ~ 12시 / 오후 : 1시 ~ 4시

봉사활동 부서별 내용

활동부서	대상	활동내용
소아청소년과	입원, 외래환아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동화구연
외래안내	내원객	진료상담, 진료실, 검사실 위치안내, 동행안내
도서대여	입원환자, 보호자	무료도서대여, 반납, 정리
이미용 봉사	입원환자	이미용(병동방문)
호스피스	입원환자	세발, 간병, 목욕, 말벗
진료지원부서 (중앙공급실/수술실/세탁실)		진료재료 공급, 거즈나 봉대접기, 의료소모품 정리 환자가운 등 세탁물 정리

● 문의 : 병원 지하 2층 자원봉사실 담당 – 신소영 ☎032-890-2873



3. 봉사자에 대한 예우

- ① 3시간 이상 봉사 활동시 식권 지원
- ② 봉사당일 무료주차
- ③ 행사 참여 : 아유회, 송년회, 간담회
- ④ 자원봉사상해보험가입
- ⑤ 의료비 감면(6개월 이상 봉사자)
- ⑥ 자녀(중고생) 인하대병원 학생지원봉사활동 참여시 우선
자격 부여

인하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조성

■ 후원금 사용 용도

- ▶ 세계적 수준의 진료 및 임상의학 연구 지원
- ▶ 인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 참여 방법

-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현금화 가능한 자산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급여공제 등의 방법으로 일시 혹은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 단체, 법인 명의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납입 방법

- ▶ 자동이체 : 거래은행 신청후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전화 통보 (☎ 032-890-2604)
- ▶ 무통장 입금 : 하나은행 : 748-910002-39804
(예금주)인하대병원

▶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기부약정서 및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inha.com) 참조

◎ 총괄 현황 | 2011년 7월 5일 현재

기부자	약정액	납입총액	비고
301명	1,002,293,298원	832,317,145원	

◎ 기부자 현황 | 2011년 5월 1일 ~ 2011년 7월 5일 현재

일자	성명	약정액	비고
2011.6.30	(주)한국물류	10,000,000	제2기건강문화ceo과정 이점만 원우회장(안남)
2011.7.05	박금수 교수	5,000,000	제 1 진료부원장



건강교실 안내

건강교실명	내 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출산준비 부부교실	• 임신, 분만에 대한 지식 및 산모체조와 진통시의 적절한 호흡법 교육 - 참가비 7만원	매주 (토) 오후 2시	3층 회의실	분만실 (032)890-2170
항암제를 맞는 환자 및 보호자 교육	• 항암 화학요법이란 무엇인가? • 항암 화학요법의 부작용과 대처방안 •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식사요법	매주 1회 (교육 신청시 안내)	3층 암센터	암센터 (032)890-2580
유방암 환자 교육	• 유방암 환자의 식이 •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임파부종 관리 •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 신청)	8/11(목), 9/14(수) 오후 2시 ~ 4시	3층 1 세미나실	여성암센터 (032)890-2560
대장암환자를 위한 영양교육	• 대장암 환자의 식사 관리 • 암환자의 전반적인 영양 관리 - 교육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바랍니다.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3층 2 세미나실	암진료상담실 (032)890-3600,3638
암환자를 위한 미술치료	• 암환자의 우울감 극복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미술요법 - 교육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바랍니다.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후 1시	18층 10호	암진료상담실 (032)890-3600,3638



갤러리 전시안내

전시 일정	제목	참여 작가	장소
2011. 07. 23 ~ 2011. 08. 11	강희건, 김정민 초대전	강희건, 김정민	2층 갤러리
2011. 08. 11 ~ 2011. 08. 25	명로석 개인전	명로석	2층 갤러리
2011. 08. 25 ~ 2011. 09. 17	우순옥 개인전	우순옥	2층 갤러리
2011. 09. 17 ~ 2011. 10. 01	이희성 개인전	이희성	2층 갤러리

인하대병원 암진료안내

암진료상담실 : (032)890-3600

★ : 사이버나이프센터 ◆ : 비만센터 □ : 여성암센터 ■ : 폐암센터

구분	진료과	교수명	선택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오전	비고	구분	진료과	교수명	선택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오전	비고
				오전	오후	월, 수, 금	금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워임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용운	*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월, 수, 금	수, 금	월	8:15~09:30 서비스진료	갑상선암	내분비내과	김용성	* 갑상선 당뇨병, 비만	월(화) 화, 목	금		
		김형길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수, 금	수, 금	화, 목				남문석	* 갑상선 당뇨병, 낙하수체	화, 수, 목			
		권계숙	* 소화관질환, 변비클리닉	수, 목	화	화				홍성민	* 갑상선 내분비, 글다공증, 당뇨병	수, 목	월(화), 수	여성암센터(갑상선 분만후기: 2011. 10. 9까지 조경사)	
	외과	방병우	*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월, 금	수, 금	월				김소현	* 갑상선 내분비, 당뇨병, 비만				
		신선흘	* 소화기외과, 위암	월, 목						조영업	* 유방, 내분비외과(갑상선암), 부신종양	월(화), 화(목)	금		
		허윤석	* 소화기외과, 위·외암	(화)		화, 목				김재중	* 유방, 내분비외과(갑상선암)	수(화), 금	(월)		
종양내과	종양내과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수, 목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김영모	* 두경부종양, 혈액학	월, 화, 목			
		이문화	* 종양학, 혈액학	수, 목	월, 목	월, 목				임자열	* 두경부종양, 갑상선, 음성장애, 편도	화,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화), 목, 금	(화), 목, 금				이문화	* 종양학, 혈액학	수, 목	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수, (목)	(화), 목, 금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월, 금	화,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수, (목)	(화), 목, 금				방사선종양학과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화), 목, 금	(화),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화), 목, 금		
대장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용운	*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월, 수, 금	수, 금	월	8:15~09:30 서비스진료	유방암	외과 (여성암센터)	조영업	* 유방, 내분비외과(갑상선암), 부신종양	월(화), 화(목)	금		
		김형길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수, 금	수, 금	화, 목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갑상선암)	수(화), 금	(월)		
		권계숙	* 소화관질환, 변비클리닉	수, 목	화	화				이비인후과	김영모	* 두경부종양(갑상선암)	월, 화, 목		
	외과	방병우	*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월, 금	금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화), 수, (목), 금		
		김경래	*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월, 수	월, 수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수, (목), 금		
		최선근	*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화, 목	금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수, (목), 금		
간암	종양내과	이문화	* 종양학, 혈액학	수, 목	월, 목	월, 목		부인암	부인암과	이우영	* 부인과종양	화, (금)	(월), (화), (금)	금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월, 금	화, 금	화, 금				이병의	* 종양학, 불임, 폐경기	수, 목, 금	월,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화), 목, 금	(화), 목, 금				송은섭	* 부인과종양	월(화), 수(화)	(수)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수, (목)	(화), 목, 금				황성우	* 종양학, 복강경	목(화), 금	(화),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화), 목, 금	(화), 목, 금				박정우	* 부인과종양	목(화), 금	(화),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수, (목)	(화), 목, 금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훼·담부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이동행	*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화, 목				종양내과	이문희	김현정	*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화, 금			
		정석	* 담도, 췌장질환, 담도췌장질환, 위내시경	화, 금						김우철	*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화, 금			오전진료: 14:00~15:30
		안승익	* 간암클리닉, 간질환, 간염, 간경변	화, 목	화, 목	화, 목				이문희	* 종양, 혈액학	수, 목	월, 목		
	외과	이건영	* 간암도외과, 이식외과	수	금					김우철	* 종양, 혈액학	수, 목	월, 목		
		신우영	* 간암도외과, 이식외과	월	목					방사선종양학과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수, (목), 금		
		이문화	* 종양학, 혈액학	수, 목	월, 목	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화), 목, 금		
췌·담부 계암	방사선종양학과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월, 금	화, 금	화, 금		비뇨기암	비뇨기과	박정희	* 오발급 종양학, 전립선질환	월, 화, 수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화), 목, 금	(화), 목, 금				윤상민	*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화,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수, (목)	(화), 목, 금				성도환	*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월, 화, 수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화), 목, 금	(화), 목, 금				이문화	* 종양학, 혈액학	수, 목	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화), 목, 금	(화), 목, 금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월, 금	화,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수, (목)	(화), 목, 금				방사선종양학과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수, (목), 금		
폐암	호흡기내과	이종렬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화, 목	금	금	(금) : 주별 진료	두경부암	이비인후과	김영모	* 두경부종양(갑상선암)	월, 화, 목			
		곽승민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월, 수, 목	(화), 수, 목	(화), 목				김제원	* 두경부종양, 갑상선, 음성장애, 편도	금	화, 금		
		류정선	* 호흡기질환, 폐종양, 만성폐질환	월(화), 목	(화), 목	(화), 목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조제화	조제화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의학	수, 목	월, 화(화), 목(화)	월(화), 목(화)				김우철	* 두경부종양, 두경부, 두경부암, 두경부암, 유방암	월, 수, 목	(화), 수, (목), 금		
		남해성	* 호흡기질환, 폐종양, 만성폐질환	수, 목	월, 화(화)	월(화)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수, (목), 금		
		김경호	* 폐, 증식동, 기흉, 다한증	화(화)	목					김철수	* 폐,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흉부	흉부외과	김경택	* 심장, 혈관, 장막류, 폐질환	월(화)	월(화)	월(화)		피부암	피부과	김현정	* 두경부종양, 갑상선, 음성장애, 편도	월, 화, 목			
		윤용한	* 폐증증동, 식도, 다한증, 기흉, 흉곽기형	수(화)	수(화)	수(화)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월)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수, (목),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월)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수,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월)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월)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수, (목), 금		
흉부 관리암	방사선종양학과	김경택	* 폐, 증식동, 기흉, 다한증	화(화)	목			정형외과 및 골육증	신경외과	김은영	* 노신경외과, 노증학,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월(화), 수(화)	월(화), 목(화)	수(화)	▲노증, 안면경련증 상자신경증
		윤용한	* 심장, 혈관, 장막류, 폐질환	월(화)	월(화)	월(화)				박현선	* 노증증후군(아미나리), 노령 전이증후군, 노동통증, 안면경련증, 경막염증, 모이로마증, 뇌졸증기형	월(화), 목(화)	월(화), 목(화)	수(화)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월)				김현정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월)				김우철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월)				김우철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월)				김우철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혈액암	혈액내과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월, 수		연부육종 및 골육증	정형외과	김준순	* 인공정맥성술출관절관절관절, 관절액, 골증장	월, 수	월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월)				이동주	* 신장, 수부증증, 관절염	월, 수	월, 수		
		방사선종양학과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월)				윤운환	* 척추, 허리, 디스크질환, 사이버네이프, 척추증증증	수(화), 수(화)	화(화), 수(화)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월)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월)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월)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소아암	소아청소년과	김순기	* 혈액증증, 내분비, 비만, 성장	수, 금	월	월		종양내과	종양내과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화), 목, 금	(화), 목, 금				김우철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수, (목)	(화), 목, 금				김우철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목	(화), 수, (목)	(화), 목, 금				김우철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수, (목)	(화), 목, 금				김우철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수, (목)	(화), 목, 금				김우철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인하대병원 진료안내

- 대표전화 1600-8114(전국)
- 외래진료예약 (032)890-2000
- 사이버나이프센터 (032)890-3076
- 종합검진센터 (032)890-3331
- 종합검진플러스센터 (032)890-3300
- 암진료상담실 (032)890-3600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청색) : 클리닉만 진료

토요일 오전진료는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류마티스내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치과, 피부과만 가능하오니 기타 진료과의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의 시정에 따라 진료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청색) : 클리닉만 진료

진료과	교수명	선태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오전	비고	진료과	교수명	선태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오전	비고
			오후							오후			
정형외과 (☎3280)	문경호	*	인공관절성형술·고관절, 슬리겔, 골다공증, 관절염	화, 목	화		이비인후과 (☎2420)	장태영	*	수면무호흡, 비파, 코(성형), 알레르기	수, 목	월	코(성형·수요일 △어지러움증클리닉
	김려섭	*	스포츠외상·건강증상, 슬리겔, 주관절·죽골절, 관절경, 관절염	화, 목	목			김영모	*	경부경증(양·목), 음성언어(편도X)	월, 화, 목		
	김명구	*	스포츠외상·건강증상, 건관절증증상, 인대관절증증상, 관절염	월, 수	수			김구성	*	여름 냉증·민화위약, 흉膜·판(화) : 2011.6.7자			
	강준순	*	슬관임인증증상, 고관절증증상, 관절증, 관절증	월, 수	월			최호성	*	중이염, 낭창, 보청기, 인공외와, 판도	월, 화	수	
	조규정	*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측만증, 골다공증	월, 금	수			임재열	*	두경부증상, 강상선, 음성장애, 편도	금	화, 금	
	이동주	*	상지, 수부, 종양, 관절염	화, 금	화			김영호	*	소아아이후과, 편도, 수면무호흡, 비파	수, 토	월	
	김남수	*	족부, 종관절, 외상	수	수, 금			최정식	*	당뇨, 신비(화학), 폐, 흉膜증, 혈관·간선·경관증	목, 금		
	권대규	*	소아정형, 뇌성마비, 종양, 외상	목	월, 목			일반	*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토		
성형외과 (☎3870)	황 건	*	얼굴이상 및 기형, 신천기형, 미용	화, 목	화, (화)	◆입술, 입천장·기침증	정신과 (☎3880)	강민희	*	정신분열증, 우울증, 일클증후군, 노인성신연파	수, 금	월, 화	우울조수병클리닉
	김인수	*	유방재건, 유방성형, 미용수술, 미세수술	월, 수, 금	(월), 수(화)	클리닉 월화수목금		김철웅	*	난생·정신분열증·미용·성형, 불면증, 조기정신	수, 목	수, 목	조기정신병클리닉
	일 반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비만센터(PS 외래에서 진료)		이정현	*	신경신경증증상, 학습·주제·언어·노년기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정신병증증상증례
피부과 (☎2230)	최광성	*	모발, 조기질환, 어드름, 모발이식, 피부외과, 레이저	화, (화), 금	월(화), 목	◆발모 및 모발·시클리나 △피부미용외과클리닉	이명훈 일반	배재남	*	노거기, 우울증, 기억장애, 치매, 노년기·정신장애	화, 수, 목	월(화), 목(화)	△처음가기감전클리닉 △여성암센터 대체방문
	신정현	*	해외연수(2010. 9 ~)					이명훈	*	소아청소년증·정신과, 성인정신과			
	송희진	*	백癜증, 피부미용, 피부노화	(수), 금	화, 수, 금	□피부미용외과클리닉 ★피부외과응급클리닉		하충건	*	운동장애, 퇴행성질환	화, 수	수, 목	운동장애클리닉
비뇨기과 (☎2360)	일 반			월, 수, 목	(월), 수, (목)			나정호	*	뇌혈관질환, 뇌출증	화, 목	월, 목	뇌출증클리닉
	서준규	*	성기능장애, 여성배뇨장애, 불임	월, 수	수			최성혜	*	치매, 기억장애	월, 수, 금	화	노인장기증증례
	박원희	*	요실금, 종양, 전립선질환	화, 금	화			윤창호	*	간질, 수면장애(코글이, 수면무호흡 등)	월, 금	월, 수	수면증증례
	윤상민	*	종양, 결석, 신이식	화, 금	화			박희권	*	뇌출증,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월, 수, 금	금	뇌출증증례
	성도환	*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월, 수	수			배은기	*	간질, 수면장애(코글이, 수면무호흡 등)	화, 목	화, 목, 금	만5세 이상 진로기능
	이 택	*	소아비뇨, 소아·성인비뇨장애, 애뇨증	목	월, 목			윤정호	*	간질, 수면장애(코글이, 수면무호흡 등)	월, 화, 수, 목	월, 화, 수, 목	면5세 이상 진로기능
	류지간	*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비뇨기외상	목	월, 목			박희재	*	일반내과	월, 화, 수, 목	월, 화, 수, 목	면5세 이상 진로기능
	일 반							일반재활	*	일반재활	월, 화, 수, 목	월, 화, 수, 목	△족부클리닉(3주)
산부인과 (☎2270)	이우영	*	부인과·종양	화(금), (화), 금	화(금), (화), 금	□여성암센터 △비만센터	가정의학과 (☎2240)	최지호	*	가족건강관리, 금연	월, 화, 목	화, 수, 금	진전센터건강
	이병의	*	종양학, 불임·폐경기	수, 목, 금	월			이연지	*	항노화영양치료, 생활습관교정, 스트레스	월(화), 수, 금	월(화), 목(화)	△비만센터
	송은섭	*	부인종양	월(화), (수)	(수)			일 반	*	신체검사(수학, 비자용) 영문진단서	월, 화, 수, 목	월, 화, 수, 목	
	황상우	*	종양학, 복강경	화(금), (화), 금	화			박홍재	*	일반내과	월, 화, 수, 목	월, 화, 수, 목	면진료 08:00~19:00
	박지현	*	주사기외학, 산과조음파	월, 수	(월), 수, 목								
	박정우	*	부인과·종양	목	(목), 목(목)								
여성암센터 ☎2500	정현재	*	신관과, 내시경	화	월, 수, 금		재활의학과 (☎2480)	정한영	*	뇌출증증상, 소아발달장애, 경제·행동, 노상증비	월, 금(화)	수	#노상증증례
	이우영	*	부인과·종양	금	월, 목			김정현	*	근골격통증증상, 오신경, 말초신경증	화, 수	(수), 목	△증파·냉증·관절증증례
	송은섭	*	부인과·종양	화, 수	수			김명숙	*	척수수상, 언어장애, 벤트증, 의지보조기	목	월(화), 목(화)	*언어장애
	황상욱	*	종양학, 복강경	월, 목				일 반	*	일반재활	월, 화, 수, 목	월, 화, 수, 목	
	박정우	*	부인과·종양	화	금								
	외과												
	조영업	*	우방, 내분비외과	월, 화, 목	목								
	김세중	*	우방, 내분비외과	수, 금	수								
영상의학과 정신과 내분비내과	김종현	유방, 내분비외과	금				방사선종양학과 (☎3070)	김우철	*	소화기암, 폐암, 난방, 두경부암, 혈액암, 위암	화, 목	금(화), 목(금)	★사이비나이프센터 치료증진·방사선표준
	김윤정	유방방사선학	(수)					김한정	*	유방암, 비뇨기암, 경부경부암, 부인암	월, 수, 목	월(화), 수, 목(화)	
	이명훈	불경증증상	(화)					일 반	*	일반내과	월, 화, 수, 목	월, 화, 수, 목	
소아청소년과 (☎2260)	홍성빈	감상선·검사	(화)										
	손병관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질환	월	목	월		핵의학과(☎3160)	김우철	*	소화기암, 폐암, 난방, 두경부암, 혈액암, 위암	화, 목	화, 목(화)	
	홍영진	*	심장, 김영	수, 목	월			김현정	*	유방암, 비뇨기암, 경부경부암, 부인암	월, 수, 목	월(화), 수, 목(화)	
	김순기	*	혈액, 종양, 내분비, 비만, 성장	수, 금(화)	월, 목			박현경	*	뇌증증, 노폐증, 노폐증기형	화	목	
	전용훈	*	신생아, 미숙아, 발달	목, 금	화, 수			윤승환	*	척추, 척수, 원발성증양	금		
	임대현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제조직	화, 금	월, 수								
	김정희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제조직	월, 화	수, 금								
	권영세	*	신경·노폐증·간질, 두통	월	화, 목								
안과 (☎2400)	이지은	*	생신기증·자궁·갑상선·내분비·신장증증상	수, 목	화(목), 금	(목)오후: 비만센터진료 14:00~16:00	핵의학과(☎3160)	한인영	*	동위원소치료	월, 화, 목	월, 화, 목	
	박신영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질환	금	월, 화				임종한	*	환경·질환·화학물질·면역·독성증증상·기질증·고장증	화, 목		
	일 반							박신구	*	작업환경·근골격계질환, 시야장·보건관	월, 수	월, 금	
								김한철	*	뇌, 신장관·혈관·폐, 젖·관리, 업무적환경·기후·업무환경상태	월, 수	수	
	EYAL	레이저 클리닉	금	수, 목, 금									
안과레이저(☎2400)							응급의학과(☎2301)	임종한	*	응급의학	월, 목	월, 목	
								응급의학과(☎2861)	*	수술·수술·수술	월, 화, 수, 목	월, 화, 수, 목	

국내 첫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국내 최초 의료원 전 부문 JCI인증 동시 달성

Healthcare Quality
Patient Safety



의료기관 인증제는 국내 및 국제 환자안전기준 충족은 물론 세계수준의 우수 의료기관을 양성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하대병원은 국내 의료기관 첫 인증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공인받게 되었습니다.
국내최초 의료원 전 부문 JCI인증과 더불어 인천의 대표 의료기관으로 한걸음 더 도약하는 최첨단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인하대병원
www.inha.com